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신문방송학석사학위논문

양계초의 언론사상과 대한제국 언론

-언론자유와 신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5년 2월

부경대학교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상세보

신문방송학석사학위논문

양계초의 언론사상과 대한제국 언론

-언론자유와 신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영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부경대학교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상세보

상세보의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주 심 철학박사 김무규

위 원 문학박사 이상기

위 원 철학박사 김영환

- 목차 -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과 의미	2
3 연구방법	3
II. 본론	5
제 I 장 양계초의 생애 및 언론사상의 출현	5
1. 변법운동 실패 전의 언론사상	5
2. 일본 망명 후의 언론사상	9
3. 귀국 후의 언론사상	15
제 II 장 양계초 주요 언론사상	17
제 1 절 소통사상	17
1. 소통사상의 출현	20
2. 신문체의 특징	22
3. 문체에 관한 견해	28
제 2 절 언론자유	30
1. 중국의 언론자유 출현	30
2. 양계초 언론자유사상의 형성	38

가. 언론자유에 대한 논의	40
나. 언론자유에 대한 요구	44
제3절 언어 대중화	45
1. 언어 대중화에 대한 논쟁	46
2. 양계초가 만청 문학의 대중화에 미친 영향	48
제III장 양계초의 언론사상이 대한제국 언론에 미친 영향	50
1. 대한제국 학자들의 양계초 수용	50
2. 양계초 언론사상의 영향	53
가. 언론자유에 관한 논의	51
나. 신문의 역할에 관한 논의	55
1) 소통의 역할	55
2) 정치적 역할	58
3) 교육적 역할	60
III. 결론	62
IV. 참고문헌	66

양계초의 언론사상과 대한제국 언론
-언론자유와 신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중국 근대시기 유신파계몽주의 지식인의 대표인 양계초가 중국의 정치·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개혁운동에 중대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구한말에 소개된 이후 개화기 애국계몽주의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자 했다. 1896년 양계초는 황준헌(黃遵憲)과 함께 주필로서 《시무보》를 창간하였다. 그는 신문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였다. 1898년12월23일, 그는 요코하마(橫濱)에서 《청의보》와 《신문총보》를 창간하였다. 그는 《청의보》에서 신문이 지켜야 할 이상적인 자세에 대해 제일 저명한 신문의 사대 준칙을 제출하였다. 첫째, 그 주지를 설정하여 높여나간다(宗旨定而高). 둘째, 신국민을 만들기 위해 외국의 문물과 이론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간다(思想新而正). 셋째, 자료를 풍부하게 해 여러

가지를 망라하며 선택을 엄격히 하여 한 글자를 읽더라도 반드시 유익함이 있도록 한다(材料富而當). 넷째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며 없는 사실을 날조하는 것은 가장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報事確而速). 그는 신문을 국군(國君)의 귀와 눈, 국민의 입으로 비유하였다. 언론의 기능이 “소통”이라고 생각하였다.

양계초는 일본 망명 후 서구식 언론사상의 영향을 받아들여 중국의 실패원인을 여러 가지를 분석하여 서구문명의 수용을 제창하고 애국계몽사상을 고취한 많은 문장들에 대해 한문에 능통한 대한제국 지식인들도 크게 공감했다. 대한제국 언론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외래적 요인들 말할 때 주로 주목해온 것이 일본과 미국의 영향이다. 일본의 영향에 대한 관심은 최초의 근대신문인《한성순보》의 창간과정에서 박영효가 일본의 사상가 후쿠자와(福澤諭吉)의 권고로 신문 발행을 도울 일본인을 데리고 왔던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미국 언론사조의 영향에 대한 관심은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운동을 주도한 서재필과 윤치호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들의 언론에 대한 견해와 인식에서 구미의 자유주의 언론사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양계초의 논의와 주장은 언론인과 일부 지식인만이 직접 접해 보던 데서 나아가 훨씬 확산되고 대중화되어 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양계초, 언론자유, 대한제국에 대한 인식, 신문, 소통, 신문체

I. 서론

1. 연구배경

무술유신운동은 중국의 개혁운동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양계초와 그의 사부 강유위¹⁾(康有爲)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정치가로 알려진 양계초는 정치성 못지않게 학술분야에서도 매우 뛰어났다.

그는 고금(古今)의 일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해외정세에도 통달하였다. 서양학술을 도입하여 실제 중국의 현실상황에 맞게 결합하여 수많은 이론을 도출했다.²⁾ 조선 및 대한제국의 지식인들은 중국과 비슷한 역사배경과 가까운 지리 관계 때문에 한자문화에 익숙하고 사상적으로 중국에 깊은 뿌리를 둔 유학사상가들이었다. 대한제국 지식인들이 근대사상의 흐름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수단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문, 잡지 서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변법운동가들의 논의와 주장들이 대한제국

1) 강유위(康有爲, 1858년3월 19일 ~ 1927년3월 31일)는 중국 청나라 때부터 중화민국 때까지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이다. 량치차오(양계초)와 함께 중국 근대 정치사상가로 분류된다. 광둥 성 난하이 현 출신으로 지방에서 살며 공양학과 당시 유럽의 근대화에 대해 공부하였다. 또한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입헌군주제의 과정도 관심있게 지켜보게 된다. 고향에 사숙(私塾) 만목초당(萬木草堂)을 열고 양계초 등의 제자를 배출하는 한편 과거에 응시하여 1895년 진사가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강유위 [康有爲]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2006.5.22, 휴머니스트).

2) 周芳, 《梁后超新闻思想初探》, 武汉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3卷3期, 2001年9月.

의 특수한 상황 속에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양계초의 언론 사상 역시 도입한 후 빠르게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 수용되었다. 그 당시에도 《독립신문》을 통하여 서구식 언론개념이 이미 소개되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에서 도입한 것이지만 그 뒤로 중국 양계초의 언론사상 영향이 적지 않았다 는 점을 일부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³⁾

중국학자들은 양계초를 많은 측면에서 연구하였지만 이들 대부분 연구는 정치, 문학, 민권 등의 사상 쪽에 집중되었다. 반면 언론사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양계초의 사상연구는 대부분이 역사학, 철학, 문학 쪽에만 집중되었다. 이혜경의 《천하관과 근대화론 양계초를 중심으로》, 서강의 《중화 유신의 빛 양계초》 등이 있지만 언론사상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한제국시기 지식인들의 언론사상에서 양계초의 언론사상의 수용 또는 영향에 관해서 아직 논의되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양계초의 생애 및 언론사상을 살펴보고 양계초의 언론사상을 중심으로 대한제국시기의 개신유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했는지 고찰하고 더불어 양계초의 언론사상 수용이 갖는 사상사적 의미를 평가하려고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의미

3) 김영희, “황성신문 관련 인물들의 언론사상,”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 학술발표회논문집Ⅱ》, P7.

먼저 양계초의 언론사상을 살펴보고자한다. 어떤 사상은 그 시대에만 맞게 적용되며, 반대로 일부 사상은 그 시대를 이끌 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의 신문 출판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청의보》에서 제시한 신문의 사대 준칙은 현재 신문 사업에도 몹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학적 방법을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다. 크게 세 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제 I 장 양계초의 자서전과 다른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통해 언론사상을 발전시킨 과정 및 사상의 변화를 서술할 것이다. 변법운동 전 그는 당시 중국이 참경에 빠진 것은 청나라의 언권 속박으로 인해 국민의 지혜는 열리지 않고 무지몽매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중국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고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변법운동 실패로 일본으로 망명 후에 신민사상을 주로 전개하였다. 그는 문명화를 계몽, 근대국가의 국민창출을 위한 계몽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국민들을 어떻게 계몽하는지 탐구하였다.

제 II 장 양계초의 언론사상에 대하여 원시자료 및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 분류, 분석한다. 그리고 언론자유사상은 양계초 이전에 중국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간략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는 신문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소통역할이며 나라의 성쇠는 풍기통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다. 양계초의 언론사상은 중국인의 주체가 되어 받아들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양계초

가 신문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지 탐구하겠다.

제Ⅲ장 양계초의 언론사상이 대한제국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연구한다. 장지연이 문장을 썼을 때 주로 국한 혼용체로 사용했지만 그의 한문문체 속에는 일본에서 유래한 어휘와 양계초의 신문체에서 유래한 어휘가 많이 나타난다. 장지연이 개방적인 애국 계몽사상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을 읽으며 그의 신문체를 수용·체득한 결과이다.



II. 본론

제 I 장 양계초의 생애 및 언론사상의 출현

1. 변법운동 실패 전의 언론사상

양계초(1873-1929)는, 자(字)는 탁여(卓如), 호는 임공(任公), 필명은 애시객(哀時客)、음빙자(飲冰子)、음빙실주인(飲冰室主人)、중국지신민(中國之新民)、자유재주인(自由齋主人)、만수실주인(曼殊室主人)、소년중국지소년(少年中國之少年)등 광동성 신회사람이다. 그는 중국 근대 자산 계급 개량파의 저명한 정치 활동가, 사상가, 문학가이자 학자이다. 또한 만청(晚淸)과 민국 두 시대를 겪었으며, 정치와 학술 두 방면에 큰 업적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스승 강유위의 영향을 받아 구국(救國)의 변법 유신에 참여하였다. 양계초가 강유위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았다.

첫째, 《삼세설》⁴⁾의 역사관이다. “즉 강유위의 주장에 의하면, 공자는 세상이 거란세(據亂世)에서 승평세(升平世)로 진화하고 승평세에서 대동세(大同世)로 진화한다”⁵⁾과 했다.

둘째, 입헌군주제에 대한 정치주장이다. 양계초에 따르면 헌정(憲政)이란 국민정치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또한 정당정치이

4)三世說是中國的一種社會歷史學說，認為人類社會是沿着據亂世、升平世、太平世順次進化的過程。此說源于古代，由近代康有為系統化，成為社會維新的理論基礎。http://baike.baidu.com

5) 네이버 지식백과 양계초의 생애 해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다. 정당정치에서 여론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변법운동 전에 양계초의 언론 사상은 정치 목표를 이루는 기초와 수단이다. 양계초의 역사관이나 정치주장에 대한 연구가 이미 많기 때문에, 본 논문은 전통적인 연구와 다르게 그의 정치목표를 이루어지는 기초와 수단으로서 언론 사상을 주로 연구하겠다.

양계초가 여론이란 다수인(多數人)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여론의 영향력에 따라 “개인의지와 국민의지”를 구분하였다. “개인의지”는 “국민의지”로 전환한 후 정치를 간섭할 수 있다. 이러한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신문은 매우 중요한 경로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신문은 무형 여론의 담지체였다. 신문 등 매체를 통해서 의견을 발표하여 비로소 사회에 영향을 끼쳐 목표를 이룰 수 있다.

1894년 6월 그는 스승 강유위에 따라 복경에 들어가서 회시(會試)에 참가했다. 그해 7월 중일 전쟁은 일어났으며, 이듬해 중국이 패하여 상권욕국(喪權辱國) 『마관조약』⁶⁾을 체결했다.

1895년 『마관조약』을 체결한 후에 스승과 함께 각성(各省)의 거인을 연합하여 “공차상서⁷⁾(公車上書)”를 발동했다. 그는

6) 시모노세키 조약(한자: 下關條約 하관조약, 일본어: 下關條約, 중국어 간체: 馬關條約, 정체: 馬關條約)은 1895년 3월 20일부터 야마구치 현 시모노세키 시에서 열린 청일전쟁의 강화회의로 체결된 조약이다. 4월 17일 일본제국의 이토 히로부미와 청나라의 이홍장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5개 항목으로 청나라의 조선간섭을 물리치고 일본이 조선과 만주까지 지배력을 뻗칠 수 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하여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의 국제적 위치를 확립시켰고 청의 조선에 대한 형식적인 종주권 자체가 부정되었다. 청나라는 이 조약으로 인해, 배상금 2억 냥을 일본에 지불하였으며,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 섬, 평후 제도 등을 할양하였으며, 통상상의 특권을 일본에 부여하였다.
<http://ko.wikipedia.org/wiki>

《만국공보(萬國公報)》에서 주필로서 변법사상을 선전했다. 이 사상은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여 열강이 침입하는 약육강식의 현실에서 중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양 학술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변법을 통해서 자강, 즉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논리였다⁸⁾. 스승과 함께 “강학회”를 설립했으며, 그해 7월 북경에서 변법유신을 선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간행물 중외기문⁹⁾《中外紀聞》를 창간했다. 1896년 북경을 떠나서 상해에 도착하고 황준헌(黃遵憲)¹⁰⁾과 함께 《시무보》를 창간하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신문을 통해서 정견을 선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언론사상을 초보적으로 형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문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출하였으며, 신문의 창간 및 발행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7)公車上書, 是指清朝光緒二十一年(1895年), 康有為率同梁啟超等一千兩百名舉人於北京聯名上書清光緒皇帝, 反對在甲午戰爭中敗于日本的清政府簽訂喪權辱國的《馬關條約》。被認為是維新派登上歷史舞台的標志, 也被認為是中國群眾的政治運動的開端。
http://baike.baidu.com

8) 윤혜영, “청말변법사상” 《중국사》 (지식산업사, 1986) 참조

9) 《中外紀聞》 (1895年-1896年), 康有為主辦。光緒二十一年(1895年)六月二十七日創刊于北京。雙日刊, 由梁啟超、麥孟華等編輯。1895年11月, 康有為在京組織成立“強學會”。后根据英國傳教士李提摩太建議, 爲了与广學會的機關報《萬國公報》相區別, 改名爲《中外紀聞》, 十一月初一日正式出版, 以梁啟超、汪大燮爲主筆。該刊以編譯西電西報和刊載上諭奏章爲主要內容。隨《邸報》附着在京官員, 每刊約二、三千份。十二月初六日(1896年)与北京強學會同時被清廷查封, 前后發行僅月余, 共出版18期。http://baike.baidu.com

10) 중국 청말의 외교관 겸 작가. 당시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미국과 연합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문학인으로서 그는 개화파 문학을 이끌었는데, 문학의 진화와 의식의 근대화 등에 바탕한 자유신시를 주장했다.[네이버 지식백과] 황준헌 [黃遵憲]

첫째, 신문의 성격이다. 신문이 정치조직과 선전을 위해서 한 가지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정치가로써 변법운동 중에서 신문의 영향을 깊게 인식했다. 당시 중국에서 국민들은 언권속박으로 인해 사상을 계몽하지 않고 무지몽매하였다. 그래서 양계초가 변법이 꼭 필요한 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기풍이 널리 열리고 시야를 넓힌다. 책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것이 사실 방편이다.”¹¹⁾

둘째 신문의 기능이다. 그는 신문이 막힘을 제거하고 소통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 이런 기능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논보관유익어국사》에서 그는 국가 강성여부의 관건은 소통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나라의 강약은 소식과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는가, 막혀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중국이 수십 년간 수모를 당한 것은 상하가 불통하고 내외가 불통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¹²⁾ 다시 말하자면 신문사는 안팎으로 또 아래위로 소통을 이루는 길이다. 막힌 것을 통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신문사는 그 첫 단계로서, 소통을 위한 이목후설적 작용을 한다. 또한 조선의 《데국신문》에도 신문이 나라의 등불이고 이목의 역할을 한다는 기사가 있다.¹³⁾ 이 방법으로만 막힌 상태¹⁴⁾를 통하게 시

11) 龔郭清, 《論戊戌變法時期梁啓超政治思想兩大基本傾向》, 浙江師大學報(社會科學版), 1999 年第5 期 原文: “民智未開. 所以梁啓超認為 維新要“發端經始, 開廣風氣, 維新耳目, 譯書印報, 實為權輿”

12) 梁啓超《論報館有益于國事》, 轉引自張之華主編《中國新聞事業史文選》第18頁。中國人民大學出版社1999年9月第一版。原文: “戰國之強弱, 則與其通塞而已……上下不通, 故無宣德達情之效……內外不通, 故無知己知彼之能”, 上下, 內外不通, 則國比不能強, 接着他指出“去塞求通, 厥道非一, 而報館其導端也”

13) 《데국신문》, 1903.3.9., 論說“성은을 보답한 일”.

킬 수 있다. 즉 신문이 이목후설적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세계 각국의 상황을 결합하여 청정부 신문사 소식전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다. 소식전과기능은 신문의 본질에 딱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 그의 언론사상은 자산 계급 개량파의 최초 언론사상이다. 즉 그는 신문발행을 통해 폐정치를 개혁하고, 현재 정권을 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지만 신문발행의 최종 목적은 변함없이 봉건왕조를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계초의 언론사상은 아직도 봉건사상에 벗어나 가지 못하였다.

2. 일본 망명 후의 언론사상

1898년 9월 21일, 변법운동¹⁵⁾이 실패하자 서태후는 광서황제를 가두며 강유위와 양계초를 체포하려 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는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었고, 망명 이후 일어로 번역된 서양서적과 일본인 저술한 각종 서적을 접하면서 언론 사상 또한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었다. 그는 신문과 잡지를 통해 서양사상가들의 논리를 소개하면서 사상을 체계화시켰다. 이 시기 언론사상을 다룬 출판물은 홉스 (Hobbes), 루소 (Rousseau), 벤

14)“雍塞”의 상태: 보지도 듣지도 않다는 상태.

15)변법자강 운동(變法自強 運動)은 강유위가 추진한 정치 운동이었다. 1898년의 ‘변법자강책(變法自強策)’이다. 광서제는 당시 서태후의 손아귀에 휘둘리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개혁 정치를 추구하기 위해 강유위의 갖가지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강유위의 변법자강책에는 과거 제도 개혁, 조세 개혁, 탐관오리 혁파, 각종 경제 개혁 등이 담겨 있었고, 무술변법을 통해 이중 일부를 실행에 옮기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변법은 광서제의 미약한 권위에 의존했고, 결국 서태후 등 반개혁파에게 패배해 외국으로 망명을 가는 결과로 끝이 난다. 이로 인해 무술변법은 ‘100일 변법’이라고도 불린다. <http://ko.wikipedia.org/wiki>

담 (Bentham) 및 마쓰모토(松本君平) 등의 저서들을 들 수 있다¹⁶⁾. 또한 전 영국대신의 말을 인용하여 신문 사업이 결코 적은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서 귀족, 종교 신도, 평민의 3대 종족 외에, 하원에 신문기자석이 상설되어 신문기자가 제 4 종족의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아 그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¹⁷⁾

1898년 12월 23일, 양계초는 요코하마(橫濱)에서 《청의보》와 《신문총보》를 창간하며 개량(改良)을 주장하고 혁명에 반대했다. 동시에 많은 서양 사회 정치학설을 소개하여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신문이 일본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간섭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신문사 주필로서 신문을 주로 일본에 배포되었다. 《청의보》의 영어이름이《The China Discussion》이지만 신문 내용이 몹시 격렬하였다. 그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였지만 《청의보》는 이미 공자 기년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 마디로 말하면 《청의보》의 종지는 사상계몽이다.

《청의보》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세 가지 측면을 나눌 수 있다. 첫째, 변법운동에 관련한 내용이다. 둘째, 국민의 애국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서양과 일본의 학설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 외에 《청의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898년 일본소설계에서 정치소설의 큰 흐름을 일어났다. 수많은 지식인들은 소설에 정치 요

16) 方漢奇 主編, 《中國新聞事業通史》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pp.644~656

17) 梁啓超, 清議報一百卷祝辭並論報館之責任及本館之經歷 p.713

소를 융합하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양계초도 역시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소설이 많은 독자들을 정복하였다. 그래서 “문학 중에서 소설은 가장 높은 등급이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동시에 그는 소설을 쓸 때 저자의 정치사상을 상세히 기술할 것을 제창했다. 정치 소설은 《청의보》에서 많은 지면을 차지하였다. 그는 이 계기로 “소설계의 혁명”을 일어나게 만들었으며, 신문에서 많은 소설이 출현하는 소설의 혁신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언론의 주요 기능은 정부를 감독하고 국민을 향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某以爲報館有兩大天職,一曰對於政府而爲其監督者,二曰對於國民而爲其嚮導者是也).¹⁸⁾ 양계초는 이어 신문사와 정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즉 신문사는 정부의 부속이 아니라 정부와 같은 지위를 차지다. 신문사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감독하는 관계로 설명하였다.”¹⁹⁾ 《청의보》 100호 《청의보 제백책 축사 그리고 논 보관의 책임 및 본 보관의 경력》에서 그는 이를 위해 신문이 지켜야 할 이상적인 자세에 대해 제일 저명한 신문의 사대 준칙을 제출하였다. “첫째, 그 종지를 설정하여 높여나간다. 둘째, 신 국민을 만들기 위해 외국의 문물과 이론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간다. 셋째, 자류를 풍부하게 해 여러 가지를 망라하며 선택을 엄격히 하여 한글자를 읽더라도 반드시 유익함이 있도록 한다. 넷째,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며 없는 사실을 날조하는 것은 가장 금해야 한다는

18) 양계초, 《敬告我同業諸君》, p.720.

19) 양계초, 《敬告我同業諸君》, p.721. 原文：報館者非政府之臣屬，而與政府立於平等之地位者也，不蜜惟是，政府受國民之委託，是國民之雇傭也，而報館則代表國民發公意以爲公言者也”

것이다.”²⁰⁾ 이런 원칙은 현재 신문업에도 몹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는 이미 신문의 강대한 영향이 당파에 복무하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지만 그때 신문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초기 상태에 머물렀다. 신문의 정치성과 계급성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 일본 선거가 있을 때 그는 일본과 유럽 각국 정당은 신문으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의 언론사상은 점점 성숙해졌다²¹⁾.

양계초는 일본에 있는 동안 손중산²²⁾과 같은 혁명과 인사와

20)梁啓超《清議報一百冊祝辭并論報館之責任及本館經歷》，轉引自《中國新聞事業史文選》第38頁中國人民大學出版社1999年9月第一版。原文：“宗旨定而高，思想新而正，材料富而當，報事確而速”

21)蔡翠，《東學影響下的梁啓超新聞思想》碩士學位論文，P20 (2010)

22)쑨원(1866년 11월 12일 ~ 1925년 3월 12일)은 중국의 외과 의사이자 정치가이며 신해혁명을 이끈 혁명가, 중국 국민당(中國國民黨)의 창립자이다. 광둥 성 출신으로 홍콩에서 의학교를 졸업하였다. 재학 중에 혁명에 뜻을 품고 1894년 미국 하와이에서 흥중회를 조직하여 이듬해 광저우에서 최초로 거병했으나 실패했다. 그 후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망명하면서 삼민주의를 착상, 이를 제창했다. 1905년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 화교들을 중심으로 중국혁명동맹회를 결성, 반청 혁명운동을 전개했다. 1911년 쑨원은 난징에서 신해혁명을 크게 성공시킴으로써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 임시대통령이 되었으나, 북양군벌의 거두 원세개와 타협, 같은 해 4월 원세개에게 실권을 위임하였고 급기야는 1913년 4월 1일 원세개에게 대총통직을 넘겨주었다. 같은 해 '제2혁명'에서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 이듬해 중화혁명당을 결성하여 반원(反遠, 반 원세개)운동을 계속했다. 1917년 광저우에서 군정부를 수립, 대원수에 취임하고, 1919년 중화혁명당을 개조, 중국 국민당을 결성했다. 1924년 국민당대회에서 '연소, 용공, 농공부조'의 3대 정책을 채택, 제1차 국공합작을 실현시켰다. 이어 '북상선언'을 발표하고 '국민혁명'을 제창, 국민회의를 주장했으나, 이듬해 베이징에서 병사했다. 쑨원의 묘는 난징에 있다. 오늘날 중화민국에서 국부로 추앙받고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마오쩌둥보다도 유명한 혁명 선구자로서 존경받고 있다. 쑨원은 한국의 독립 운동 지원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창립에 커다란 일조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로 1962년과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중장이 추서되었다. <http://ko.wikipedia.org/wiki>

자주 교류하였다. 그들은 모임 때 항상 혁명의 방법에 대해서 변론하였다. 그는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흡수하기 때문에 사상 관념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때 그의 사상은 강유위의 사상과 달라졌다. 게다가 강유위가 지도한 변법운동의 실패로 인해 그는 강유위의 개량주의이론을 의심하여 심지어 반대하였다. 점점 혁명파에 기울어진 양계초는 《청의보》에서 《자유서》를 발표하며 “많은 이론들 중에서 중국에 제일 맞는 것은 루소의 《민약론》이다. 오늘 중국에 가장 맞는 이론은 루소의 《민약론》을 뿐이라고²³⁾” 주장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혁명입장을 강조했다.

양계초는 《청의보》에서 주필 3년 동안 광서제(光緒帝)를 돕기 위해서 일본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실패하였다. 마지막으로 양계초의 사상은 민약론으로 많이 변화하였지만 《청의보》에서 주필 3년 동안 사상이 “존황보황”을 주장하다가 “무력항만”으로 입장으로 바뀌고, 불확실한 상태였다.

1901년 12월 21일 《청의보》발행이 정지되었다. 《청의보》가 발행정지한 지 한 달 만인 1902년 2월 《신민총보》를 창간하여 발행하였다. 《신민총보》는 변법운동과 입헌군주제에 대해 계속 홍보를 하였다. 당시는 《신민총보》의 영향력은 《시무보》보다 훨씬 컸다. 양계초는 바로 이 시기에 여론계의 총아로 추앙받았다.

그는 일본에서 새로운 사상을 접하면서 사상독립을 성취했다.

23) 《自由書·破壞主義》，李華興、吳嘉勛編《梁啓超選集》，上海人民出版社，1984年，第98-99頁。原文：(其方最适于今日之中國者，其惟盧梭先生之《民約論》乎！)

반월간지 《신민총보》를 창간하고 나서 ‘신민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신민설’은 《신민총보》 창간호부터 제 72호(1906년 3월)까지 전후 26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여기서 ‘신민’이란 《대학》의 3대 강령(큰 배움의 길은 밝은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에 있다)에서 따온 것이었다. 또 ‘중국의 신민’이라는 필명을 사용했으며, “신민은 오늘날 중국의 첫 번째 급무”라는 주장을 폈다. 중국에서 민족주의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신민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양계초는 ‘중국과 서양의 도덕’과 ‘정치와 학문의 이론’을 잘 아는 가운데 ‘신민’의 개념을 도출했다. 중국은 일본과 구미(歐美)처럼 민주주의국가로 개조하자고 했다. 사실 《신민총보》의 창간한 목적은 ‘신민설’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시기에 ‘신민설’은 양계초의 정치사상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한다²⁴⁾. 양계초는 《신민설》을 통해서 파괴주의를 선전하였다. 파괴주의는 당시 지식인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훗날 중국 혁명의 지도자가 되는 모택동은 젊은 시절 고향인 호남성 장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중국의 개조를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그 조직의 이름을 ‘신민학회’라고 했다. 또한 양계초의 신민사상은 애국 계몽 운동 시기 한국의 지식인들에게도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 “1907년 안창호, 신채호, 양기탁 등이 조직한 항일 비밀결사인 ‘신민회’는 양계초가 제창한 신민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단체였다”²⁵⁾.

24) 狹間直樹編。共同研究：梁啓超---西洋近代思想受と明治日本【M】。みすず書房，1999:81 (轉引自《東學影響下的新聞思想》，蔡翠，P23)

25) <http://cafe.naver.com/doulkim/12459> 한국사 세계사 알아보기.

1903년 보황회는 양계초를 초청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미국으로 여행하였다. 그는 차례대로 밴쿠버, 뉴욕, 보스턴, 워싱턴, 피츠버그,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을 8개월 동안 방문했다. 미국 주요 도시에 유람하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해 자세히 탐구했다. 그는 미국의 번창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번창의 원인을 연구하였다. 그는 미국의 의회와 정당과 헌법까지 연구하였고, 미국의 부강 원인은 민주제도, 완전한 헌법, 삼권 분립의 정치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질이 뛰어난 국민을 원인으로 꼽았다.

1905~1907년, 개량파와 혁명파의 논전이 고조를 달성하였을 때 그는 개량파의 주역으로서 혁명파를 반대하였다. 그는 《신민총보》에서 《경고우국민(敬告我國民)》, 《논 러시아 허무당(論俄羅斯虛無黨)》, 《신대륙유기》 등의 문장을 발표하여 혁명주장을 반대했다. 혁명의 위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였다. 개량파와 혁명파의 불일치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 《신민총보》와 《민보》 중심으로 논전이 일어났다.

3. 귀국 후의 언론사상

1912년 1월 1일 손중산은 남경에서 중화민국 성립을 선포했다. 9월 28일 양계초는 일본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신해혁명²⁶⁾부터 5.4운동²⁷⁾까지(1912~1920) 중국에서 새로운

26)신해혁명(辛亥革命)은 1911년 청을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성립시킨 중국의 혁명이다. 이 혁명은 중국사에서 처음으로 공화국을 수립한 혁명이라서 공화혁명이라고도 불린다. 1900년의 의화단운동 이후 열강 침략이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청 조정은 정치개혁을 피하는 소위 '신정' 운동을 일으켰으나 납세 거부와 기독교 배척을

혁명을 형성하는 중이었다. 한 편에 중국 자산 계급의 신문 학술은 체계적인 성과를 성취하였다. 근대 중국 자산 계급의 언론 사상은 말기에 들어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산 계급의 언론사상은 점점 강해져서 강한 생명력을 나타냈다. 중국에서 정식으로 3차 신문발행 고조기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자산 계급의 언론 사상은 점점 쇠퇴해졌다. 즉 양계초의 언론사상은 3단계에 진입하였다.

1912년 11월말 양계초는 《용언보》를 창간하였다. 그러나 그의 언론사상은 현실 중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원세개²⁸⁾

위시한 대중운동이 전국으로 번져 입헌군주제를 향한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http://ko.wikipedia.org/wiki>

27)중국 오사운동(五四運動)은 1919년, 러시아 혁명(1917년)의 영향을 받아 중화민국 베이징 대학의 대학 교수, 강사, 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산한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 혁명운동으로서, 중국에 변화가 발생되는 사건이 되었다. 학생운동이 혁명운동으로 변화하는 정치운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신민주주의 혁명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또한 근대사·현대사의 중국의 중요한 사건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http://ko.wikipedia.org/wiki>

28)위안스카이(원세개, 1859년 8월 20일 ~ 1916년 6월 6일)는 중국 허난 성 쉬창 부 상청 현 출신으로, 중국 청나라 말기의 무관(武官), 군인이며 중화민국 초기의 정치가이다. 자(字)는 위정(慰庭)이며 호(號)는 용암(容庵)이다. 청나라 말기에서 신해혁명 직후까지 중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조선과도 관계가 깊어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주재하면서 청나라 황제를 대신하여 내정 간섭을 수행하였다. 청일전쟁 발발 직전 도주하여 귀국하여 이후, 청나라 군대의 신식군대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귀국 후 무술변법을 계기로 청나라의 실권을 차지하였다. 쑨원과 대타협으로 선통제(宣統帝)를 제위에서 끌어내려 중국 이천 년의 제국사에 종지부를 찍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 성립 후 같은 해 4월 쑨원 임시 대총통으로부터 실권을 위임받았고 이듬해 1913년 4월 1일 쑨원과 약정에 따라 대총통직을 넘겨받아 임시 대총통에 올랐다. 하지만 제위의 욕망이 있던 그는, 만년에 스스로 황제가 되기 위하여 중화제국 제제운동(帝制運動)을 일으켜 청제를 감행하였으나, 중국 전체에서 "토원(討袁)"의 깃발이 세워지자 이내 제위를 포기한다. 이후 얼마 안가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이 제제운동은 지방 군벌의

는 신해혁명의 성과를 흠쳐서 황제가 되었다. 양계초는 실망한 나머지 분노하였다. 그는 자산계급 헌정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신문을 이용함으로써 원세개의 주장을 반대하며 “언론 독립”을 역설하였다. 어두운 현실에서 양계초의 언론사상은 곤혹에 빠졌다. 비록 그는 “언론 독립”을 늘 추구하지만 구(舊)중국에서 신문이 중립적인 “단독매체”가 될 수가 없었다. 양계초의 “언론 독립사상”은 아름다운 소망뿐이었다. 따라서 신문화운동이 일어나고 무산계급혁명은 열화와 같이 일어난다. 양계초의 언론 활동이 점점 약화되었다. 1921년 양계초는 청화대학교에서 교직을 맡아 20년 동안의 언론 생활을 끝냈다. 1929년 1월 19일 향년 75세의 나이로 북경 협화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제Ⅱ장 양계초 주요 언론사상

제1절 소통사상

강유위의 정치사상은 전제군주제이며 점점 서구 입헌군주제로 변화하여 서구 자산계급의 제도를 강조하였다. 강유위는 전제군주제가 입헌군주제로 변화의 합리성을 논증하기 위해서 “공자가 근대 자산계급의 의회정치를 주장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의원은 민간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되고 군주는 너무 존귀하지 않고 서민은 너무 비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치관점을 주장하였다.”²⁹⁾ 이러한 정치 방안은 양계초에게 큰 영향

세력이 중앙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군벌 세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http://ko.wikipedia.org/wiki>

29)康有爲:《上清帝第四書》,《康有爲變法奏章輯考》,第83頁 本문:“議院以通下情,君不甚貴,民不甚賤”

을 미치지만 양계초의 정치사상 강유위의 정치사상과 조금 다르다. 그의 사상은 강유위의 사상보다 더 급진적인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갑오전쟁³⁰⁾후 제국주의는 매우 빠르게 중국 영토를 분할하였다. 이 상황에서 강유위의 민보 사상은 주로 《상청제서(上淸帝書)》를 통해서 나타난다.《상 청제 제이서(上淸帝第二書)》에서 강유위는 양계초의 초기에 민보관(민보의 관념)에 대해서 상세히 논술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현대와 같은 신문사를 창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신문 내용은 정치 민속 문학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문 보도를 통해서 물가, 풍속 등을 알 수 있고 정치를 의론할 수 있다. 실제로 신문은 학교의 등가물이다. 언론사상은 점점 날카로워져 시무정치에도 통할 수 있다. “우리는 신문보도를 통해 다른 지역의 풍속, 생활습관 등을 알 수 있다. 그는 국민들이 충분히 시야를 넓히게 하고 똑똑하게 할 것이라 생각했다. 만약에 국민들에게 신문사의 개설권을 부여하고도 상도 주면 그 이로운 점이 일반 설교보다 좋을 것이다.”³¹⁾

30)청일 전쟁은 청나라와 일본 제국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1894년 7월 25일부터 1895년 4월까지 벌인 전쟁이다. 중국에서는 갑오년에 일어났다고 하여 중일갑오전쟁, 일본에서는 일청전쟁, 서양에서는 제1차 중일 전쟁이라고도 부른다. 청일전쟁은 청나라의 퇴보와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양무운동의 한계를 보여준 전쟁이었으며,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의 근대화가 중국의 양무운동에 비해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하였다. <http://ko.wikipedia.org/wiki>

31)康有爲:《上淸帝第二書》,孔祥吉編著《康有爲變法奏章輯考》,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2008年,第36—37頁. 原文:“近開報館,名曰新聞,政俗備存,文學兼述,小之可觀物價,瑣之可見土風.淸議時存,等于鄉校,見聞日辟,可通時務.外國農業,商學,天文,地質,教會,政律,格致,武備,各有專門,以爲新報,尤足以開拓心思,發越聰明,與鐵路開通,實相表里,宜縱民開設,

그는 신문보도의 내용은 넓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국가 다사(大事)부터 골목 소사까지 다 포함해야 주장하였다. 그래서 언론은 정부의 정치결정과 행위를 감독할 수 있다. 그는 황제에게 “국민이 자유적으로 신문사를 창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을 발행할 수 있다. 정부가 이 행위에 대한 표창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하면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다.

《상 청제 제사서(上淸帝第四書)》에는 강유위의 언론관이 더 풍부하게 나타나며 중국 정치사회 병폐의 근원을 밝혔다. 즉 윗 사람은 아래 사람과 정보를 교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정보 전파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민간(民間)신문의 논술은 꼭 사실대로 지킬 수 없지만 민간고통(苦痛)을 반영할 수 있다. “한 곳에서 신문 발행사가 많이 생기면 사회 풍기가 열리고 국민의 머리는 똑똑해진다. 그래서 양계초는 각 지역에서 신문 사업을 하라고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문사는 점점 많아진다. 정부는 신문을 읽고 사회의 상황을 다 알 수 있다. 정부가 신문으로서만 중국사회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폐단을 해결할 방법은 바로 신문사를 설치하는 것이다.”³²⁾ 이런 강유위의 민보 관념은 양계초의 소통사상에 토대를 마련하였다.

유신파(維新派)는 사회제도의 개혁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并加獎勸,庶裨政教”

32)康有爲:《上淸帝第四書》,《康有爲變法奏章輯考》,第83頁 原文:“設報達聰,宜令直省要郡各開報館,州,縣,鄉,鎮亦令續開,日月進呈.并備數十副本發各衙門公覽.雖鄉校或非,宵疇寡暇,而民隱咸達,官惹皆知.中國百弊,皆由蔽隔,解蔽之方,莫良于是”

그래서 속박한 구문풍(舊文風)이 사라졌다. 이와 동시에 서구의 새로운 사상, 명사는 많이 들어왔다. 구문체는 이미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소개하는 데에 적응할 수 없다. 그래서 대중적인과 자유적인 “시무문체”를 나타냈다. “전국 국민들이 시무문체를 좋아하고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위로는 수도까지 아래로는 시골까지 양계초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³³⁾ 이므로 양계초의 명성이 자자했다.

1. 소통사상의 출현

양계초는 급진적인 변법사상을 받아들여 신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895년 양계초는 신학(新學)을 제창하기 위해서 북경에서 《만국공보(萬國公報)》를 발행하고 “강학회”를 창설하였다. 《만국공보》는 그가 발행한 첫 번째 신문이었다.

양계초는 《시무보》의 주필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마카오(澳門)의 《지신보(知新報)》도 지도하였다. 1875년부터 1897년까지 전국에서 신문사 50개 있고 한 10개 신문사가 양계초와 관계가 있었다. 왜 양계초는 적극적으로 신문 사업에 참여했는가? 언론의 기능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신문의 특유한 전파 기능을 예리하게 보았고 신문을 국군(國君)의 귀와 눈, 국민의 입으로 비유하였다. 그는 입헌군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언론의 기능이 “소통”이라고 생각했다.

33)梁啓超，清議報一百冊祝辭并論報館之責任及本館之經歷[A].林志鈞. 飲冰室合集(文集第1冊).北京；中華書局.1989. 原文：使得“舉國趨之，如飲狂泉”，“上自通都大邑，下至僻壤窮鄉，无不知有新會梁氏者”

그에 따르면 당시 중국이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이유는 청 왕조의 막힌 정치제도 때문이다. 이 “불통(壅塞)”은 두 방면에 나타난다. 첫째 내외 불통, 즉 외국과 세계의 발전상황을 모르고 편협하여 거만하다. 진보를 바라지 않고 현상에 만족한다. 둘째 상하 불통, 청왕조의 상층과 일반국민들이 서로 모른다. 국군과 대신들이 국민들의 상황을 모르고 낙후된 사회제도를 지키고 혁신적인 생각이 전혀 없다.”³⁴⁾ 그는 중국이 부강해지면 서구에서 선진한 군주입헌제도를 도입해야하며 신문의 고유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국군으로 하여금 세계의 발전을 잘 볼 수 있도록 국군에게 눈을 제공하며 국민의 요구를 들 수 있도록 국군에게 귀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불통(壅塞)”상태를 개변하기 위해서 유효한 방법이다.

1895부터 1899년까지 양계초의 언론사상 중심은 신문발행을 통한 소통이었다. 이 주장(소통)은 과거의 언론사상에 대한 분석 정리에서 나온 것인데 19세기 하반기 국민 언론사상의 대성이다. 왕타오(王韜)、정관응(鄭觀應)、진치(陳熾)、하군(何君)、호예원(胡禮垣) 등의 신문 활동에도 “소통”사상의 영향이 나타난다. 양계초와 같은 시대의 옌푸³⁵⁾(嚴復), 담사동(譚嗣同)³⁶⁾도

34) 转引 太原师范学院学报《梁启超新闻思想的产生，转变和发展》第五卷 39页。原文：一，不曉得外國之事，世界之事，夜郎自大，故步自封。二，清王朝上層和臣民隔膜，不了解民隱民情，抱缺守殘，不知維新。

35) 옌푸(嚴復, 1853년~1921년)는 중국 청말 민국 초기의 사상가이다. 푸젠 성(福建省) 민허우 현의 사람이다. 자는 기도(幾道). 1912년 국립 베이징 대학의 초대 교장을 역임. 소년시절에 푸저우(福州)의 마미선정창(馬尾船政廠) 부설(附設)의 해군학교에서 기술을 수습하였다. 25세 때 유학생으로서 영국에 건너가 해군의 기술과 학과를

“소통”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옌푸는 내외의 통에 치우치고 담사동은 상하의 통에 치우쳤다. 양계초는 우선 근대 국민이 언론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고 소통을 신체의 이목구비(耳目口鼻)에 비유했다. 이게 미국 저명한 미디어학 학자 마셜 맥루한은 제출한 관점이 ”대중매체는 인간의 심적, 혹은 신체적 능력의 확장이라고³⁷⁾말한 사상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매체를 이용하여 볼 수 있다.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이 매체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³⁸⁾。

2. 신문체의 특징

배웠으나, 오히려 서양의 제도와 사상의 연구에 관심을 두었다.
<http://ko.wikipedia.org/wiki>

36)중국 청나라 말기의 사상가. 부르주아적 개혁운동의 대표자의 한 사람. 그의 사상은 전통적인 유교와 유럽 자연과학 사상이 혼합되어 있고, 더구나 불교 화엄의(華嚴義)의 법계세계관(法界世界觀)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인(仁)을 도덕의 기준이 되는 형이상학적 원리로, 그리고 에너지를 본체로 보고, 이로부터 모든 사물,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했다. 즉 '유통'(流通)한다고 보았다. 결국 이 '유통'의 현상(혹은 결과)이 인(仁)인 것이다. 그것에서 남녀평등, 상하(上下)관계의 부정, 세계국가의 건설, 인간동포의 주장이 나온다. 따라서, 전통적인 예교(禮敎)의 윤리, 청조의 전제(專制)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인간은 하늘의 자식으로서 모두 평등·자유·자주에 의한 붕우(朋友)라는 윤리를 수립하고, 이것이 사회결합의 원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조를 반대하고 비판함과 더불어 한(漢)민족 사회의 혁신을 지향하는 인간으로서, 강유위 등이 계획한 '무술정변'(戊戌政變, 1898)에 참가하였고, 그것이 실패한 후에 33세의 나이로 처형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담사동 [譚嗣同] (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37)[네이버 지식백과] 마셜 맥루한 [Marshall McLuhan] (사회학사전, 2000.10.30, 사회문화연구소)

38)張潔, 從《論報館有益于國事》看梁啓超的新聞思想, 談古論今 第3期 2010 原文:“這與美國著名傳播學學者麥克盧漢所說的大眾傳播媒介具有“人體的延伸”的功能一致“。麥克盧漢提出媒體就像是對人體 視覺, 聽覺, 甚至觸覺等的延伸。我們用肉眼看不到的, 借助媒體可以看到; 我們用耳朵聽不到的, 借助媒體可以聽到”

그는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국민의 사상을 열리기 위해서 “신문체” 운동을 일으켰다. 신문체는 백화문으로 가는 첫 단계이며 이후의 언론대중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양계초가 제시한 “하신문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쉽고 유창하다는 점; 둘째, 속어(俗語), 운어(韻語), 그리고 외국어법을 섞어 쓴다는 점; 셋째, 글의 체재(體裁)나 문장 구사에서 팔고문³⁹⁾보다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점; 넷째, 필봉(筆鋒)에 늘 감정이 있다는 점인 것이다⁴⁰⁾. 예를 보면 양계초 본인도 《청대학술개론》에서 자신의 문체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다.

나는 원래부터 동성파의 고문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려서 글을 지을 때, 秦漢과 魏晉의 문체를 배워 정련된 문장을 숭상했다. 이때부터(《신민총보》, 《신소설》을 창간하는 시기를 가리킨다) 스스로 해방되어 쉽고 유창한 글을 짓기에 힘써서 때로는 속어나 외국어법을 섞기도 하고 붓이 가는 대로 쓰고 구속을 받지 않았다. 학자들은 이것을 다투어 본뜨며, 신문체라고 불렀다. 노인(老輩)들이 들여우(野狐)로 매도했지만, 그 문장은 조리가 정연하고 필봉에 항상 감정이 담겨 있어, 독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종의 마력(魔力)

39) 명·청 시대에 과거시험의 답안 작성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특수한 문체로서 시문(時文), 사서문(四書文), 제예(制藝), 경의(經義), 정문(程文) 등으로도 부른다. 이 문체는 파제(破題), 승제(承題), 기강(起講), 입제(入題), 기고(起股), 중고(中股), 후고(後股), 속어결구(束語結句)의 여덟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사서'를 중심으로 한 유가 경전의 내용을 논술식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 문체는 비록 '성인을 대신하여 논의를 세운다[代聖立論]'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각 부분에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된 형식에 따라 일정한 글자 수를 써서 써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기주장이나 창의적인 내용을 쓰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당시부터 이미 많은 학자들로부터 진정한 학문의 발전과 사대부의 인격 수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비판을 받았으며, 1902년에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팔고문 [八股文] (홍루몽: 인명, 용어사전, 솔출판사)

40) 牛杰林, 《開化期文体에 끼친 梁啓超의 影響》, 中韓人文科學研究.

같은 것이 있었다.⁴¹⁾

쉽고 유창하다는 첫 번째 특징은 사실 문언일치(文言一致)의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양계초의 신문체는 비록 문언일치의 백화문이 아니지만, 쉬운 고문 및 반문반백의 언어문자를 사용함으로써 전통적인 문어(文言)에 비해 훨씬 알기 쉬웠다. 양계초의 쉽고 유창한 문체는 그의 저술이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청의보》, 《신민총보》에 발표된 《이름 없는 영웅(無名之英雄)》, 《논 진취와 모험(論進取與冒險)》, 《소년 중국설》, 《과도 시대론(過渡時代論)》, 《신민설》, 《자유서》등 양계초의 중요한 글들은 쉽고 유창한 문체로 지은 대표적인 저술들이다.

두 번째 특징은 언어문자의 개혁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양계초는 신문체 문장에 속어, 명언(名言), 운문(韻語), 그리고 외국어법을 자주 섞어 썼다. 속어에는 속담(俗談), 성어(成語), 전고(典故) 등이 있는데 양계초는 동서고금(東西古今) 물론하고 문장의 의사전달(意思傳達)에 도움이 되면 속어를 잘 활용하였다. 예컨대 “사람들이 자기 문전에만 눈을 쏘고 남의 기와에 있는 서리를 걱정하지 않는다. (各人自掃門前雪, 不管他人瓦上霜)⁴²⁾”과 같은 중국 속담이나, “세살의 노인이 있는가 하면 백살의 아동도 있다.(有三歲之翁有百歲之童)”과 같은 서양 속담은 양계초의 글에 여러 번 나타난다. 그리고 양계초는 정치 논문의 절정이나 결말 부분에서 운문을 즐겨 사용함으로써 작자 감정의 파동(起伏)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외국어법을

41) 《음빙실합집·전집》之三十四

42) 한국속담 같은 뜻: 뒷집 마당 벌어진 데 솔뿌리 걱정한다

섞어 쓴다는 것은 다른 문체와 확연히 구별되는 신문체의 독특한 특징이다. 여기서 말한 외국어법은 주로 일본 어법을 가리킨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양계초는 일본에 망명해 있는 동안에 일어를 배우고 일본 서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어 문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에 대해 양계초 본인도《하와이주 여행기(夏威夷遊記)》에서 “나는 최근 문장을 쓸 때 문장에 일어를 넣기 좋아한다.”이라고 하였다. 신문체에 준 일본어의 영향에는 어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휘와 문장부호도 포함된다. 특히 새로운 어휘들 자주 사용하여 서학을 소개하였다.

세 번째 특징은 저술의 체재와 문장구사에 관한 것이다. 먼저 체재의 측면에서 보면 양계초는 전통적인 체재와 금기(禁忌)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적합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도입하였다. 그래서 그의 저술에는 정치 논문, 각종 전기(傳記), 문답문(問答文), 인물 연보, 자술(自述), 학술 논문 등 다양한 체재가 두루 있다. 특히 양계초는 서양의 전기체를 본받아 중국의 현대적 전기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신문체 전기체를 창작하였다. 대표작품으로는《남해강선생전》, 《이홍장》, 《이탈리아건국삼걸전》, 《라란부인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들이 나중에 한국에 전래되어 개화기 전기 문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양계초의 신문체 전기는 거의 다 평전(評傳)의 형식으로 창작되었다. 평전이란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 사실을 기술하는 동시에 수시로 작자의 평론을 삽입하는 전기체를 말한다. 전기체는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구 전기에서는 주로 역사적 사실의 기술을 위주로 하고, 인물에 대

한 논평을 하지 않는다. 간혹 논평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전기의 결말 부분에 첨부하는 식이었다. 양계초는 이러한 구식(舊式) 전기 문체에서 벗어나 서술하면서 논평하는 새로운 전기 문체를 도입하였다. 그는 전기의 논평 부분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의 전기 작품은 보통 서론 또는 발단(發端)으로 시작하고, 결론으로 마친다. 그리고 서술하는 중간에서 수시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평론을 삽입한다. 구전기체에서 주로 결말에서 사용한 것과는 달리 양계초는 서론, 본론, 결론과 상관없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였다.

양계초의 신문체 전기는 또한 서사구조 면에서 일정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양계초의 전기 작품에서는 보통 주인공의 등장을 위한 시대적 상황부터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인물의 일생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시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주인공의 활동을 서술한다. 한 인물에 대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그 인물과 함께 당시의 시대적 모순과 발전 추세까지 논술하는 것은 양계초 신문체 전기의 중요한 특징이다.

정론(政論)으로 대표적인 신문체는 1899~1904년까지 성숙해졌다. 즉 《시무보》를 이어 일본에서 창간한 《청의보》와 《신민총보》에서 성숙했다. 문어⁴³⁾중국어는 단계적인 개혁의 성

43)문어(文語)란 문자를 매개로 한 언어이며, 구어체의 반댓말이다. 문어는 고정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어에 비해 변화가 적고 시공을 초월해 전달될 수 있다. 현대의 일상회화에서 사용되는 구어체에 비해 잘 쓰이지 않는다. 구시대의 표현이 많은 글을 문어문이라고 하며, 이런 문장양식을 문어체라고 한다. 한국어의 경우, 1894년 갑오개혁 이전 언문일치가 이루어지기 전의 문자언어는 거의 한문투였으므로, 구어체와 다른 이중언어생활이 이루어졌다. 그 뒤 언론매체에 구어체를 사용한 문학작품들이 발표되면서 언문일치가 이루어졌으나, 구어체를 사용한 글이 경박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과로써 만청 시기 동성파고문⁴⁴⁾(桐城派古文)이 통제적 지위를 차지하는 국면을 뒤흔들었다. 문어중국어는 백화문운동을 추진하며 5.4운동 시기에 일어났던 언어 혁신운동을 위한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요컨대 문학계몽은 양계초로 하여금 독자의 관점에서 문학양식의 변혁을 고려하게 하였다. 국민이 더 편하게 책을 읽기 위해서 문학개혁은 대중적인 길로 가야 한다. 그래서 양계초는 만청문단에 백화문 선풍을 일어나게 하며 중국 근대 문학 언어의 대중적인 추세를 초래하였다. 이런 흐름은 5.4운동 시기에 백화문의 정착에도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시 국민의 심미와 취미에 영합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문체관념을 깨뜨려야 했다. 국민의 대중적 심미요구에 맞는 소설문체를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다. 따라서 소설문체를 중심으로 현대 문체구조를 구성하였다. 그래서 중국 근대문학의 형식(문체와 언어)과 대중적인 경향은 모두 그의 이론과 창작실천이랑 불가분이다.

신문체는 신해혁명과 5.4운동 이후 문풍(文風)에 깊은 영향을

의고체에 바탕을 둔 문어체는 권위를 요구하는 글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http://ko.wikipedia.org>

44)중국 청(淸)나라 중기 이후에 주류를 이룬 산문파.안후이성[安徽省]의 통청현[桐城縣] 출신의 방포(方苞)가 명나라 귀유광(歸有光)의 주장을 받들어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고문(古文)을 본받을 것을 제창한 뒤, 같은 고향의 유대괴(劉大櫟)·요내(姚鼐) 등 두 대가가 나왔기 때문에 생긴 명칭이다. 방포는 문장의 의법(義法)을 주창하였으며, 송학(宋學)의 이념에 입각한 내용과, 당·송 제가(諸家)가 지닌 문장의 절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대괴는 문장의 음절(音節)과 신기(神氣)를 강조하였다. 요내는 송학 중심의 문론(文論)에 한학(漢學)의 방법을 도입하고, 종래의 설을 정리·집대성하여, 동성과 문론(東城派文論)의 확립자라고 일컬어졌으며, 모범문례집인 《고문사유찬(古文辭類纂)》(74권)을 편찬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성과 [桐城派] (두산백과, 두산백과)

미쳐 문어문이 백화문으로 바꾸는 과도적 문체가 있다. 오기창(吳其昌⁴⁵)은 양계초의 문체개혁에 대해서 신문체의 체제를 비로소 확립하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3. 문체에 관한 견해

중국의 경우 문언과 백화, 한국의 경우 한문과 한글의 이중 언어 질서로 확연한 분립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신문체과 국한문 혼용체는 다 시대적 과도 문체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주체적 대항체로서 새로운 민족이 상상되자, 이제 이들의 의식과 염원을 조직화하여 새로운 근대 국가의 애국적 공민으로 키워내기 위한 새로운 언어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지연의 한문 문체만을 보면 형성은 조선의 전통과 외국적 영향을 모두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 영향 가운데 양계초의 영향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 할 수 있다.⁴⁶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애국 계몽주의를 설파하고 있는 장지연의 한문 문장은 양계초의 ‘신문체(新文體)’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장지연이 한문으로 쓴 문장을 분석하여 개화기 양계초 수용

45) 吳其昌(1904-1944), 字子馨, 号正厂, 海宁硤石人。16歲考入无錫國學專修館, 受業于唐文治。好治宋理學。以才思敏捷, 与王蘧常、唐蘭合称“國專三杰”。1923年畢業后至广西容縣中學任教, 并扶助弟妹求學。1925年, 考入清華大學國學研究院, 從王國維治甲骨文、金文及古史, 從梁啓超治文化學術史及宋史。1928年任南開大學講師, 后任清華大學講師, 1932年任武漢大學歷史系教授。抗戰軍興, 隨校遷至四川樂山, 旋兼歷史系主任, 直至逝世。1925년 청화대학교 국어국문 연구소에 입학합격. 그는 이때부터 갑골문, 금문 및 고가를 중심으로 연구했고 양계초의 문학학술사 및 송사(宋史)도 연구했다. 1932년 무한대학의 역사교수가 되었다. <http://ko.wikipedia.org>

46) 《한국개화기문학과 양계초》, 우림절, p.177.

의 보편성에 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문장을 인용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대체로 종교적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정신이 통일되지 못할 것이고, 그 심지도 확고하지 못할 것이며, 그 기백도 용감하지 못할 것이므로, 매번 외세의 침략과 구속을 받아도 이를 쉽게 등한시하는 폐단에 빠져 자조 자립할 수 있는 자가 드물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국민의 지식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부득불 국민의 사상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또 만약 국민의 사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부득불 그 습관화된 신앙에서 옛 것을 제거하고 새 것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이야말로 바로 지금이 종교 개혁의 시기가 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개혁이라는 것에 어찌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근원을 회복하고 그 참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일 따름이다.⁴⁷⁾

인류는 천만년 이전부터 각지에 나누어 살면서 각각 서로 다른 발달의 과정을 겪었다. 언어와 풍속으로부터 사상과 법제에 이르기까지 모습도 다르고 정신도 달라서 부득불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자연도태의 원리에 따라 사람과 사람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나라와 나라 간에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의 명칭을 내세우는 것은 다른 군체에 대응하기 위한 까닭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외국에 신성하고 위대한 철인(哲人)이 있다하더라도 그 외국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차라리 전국 인민들의 유혈을 온몸에 뒤집어쓰고 한 사람의 혈육조차 남김없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털끝만큼의 작은 권리도 다른 민족에게 양보하지 않는다.⁴⁸⁾

47)張志淵, 《畫庵文稿》 卷六, 《大同教育會趣旨吻》, 서울,국사편찬위원회, 244쪽. 본문: 蓋無宗教之信仰者, 其精神不統一, 其心志不確固, 其魄力不勇敢, 每被外界之侵束, 而易流於泛閑之外, 能自助自立者鮮矣……則苟欲增進國民之識力, 不得不變國民之思想, 苟欲變國民之思想, 不可不於其所習慣信仰者, 爲之除其舊而布其新, 此正今日宗教改革之時期也. 然所謂改革者, 豈有他哉, 亦復其原返其眞而已矣.

48)李華與, 吳嘉勛 編, 《梁啓超選集》, 《新民說》,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4, 219쪽. 본문: 人類自千萬年以前, 分孽各地, 各自發達. 自言語風俗, 以至思想法制, 形質異, 精神異, 而有不得不自國其

장지연의 《대동교육회취지문》이나 양계초의 《신민설》은 모두 간결하고 함축성을 중시하는 전통 한문의 수사 기법과는 다른 매우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어휘구사가 전통 한문의 단음절에서 벗어나 근대적 어휘 위주의 쌍음절 단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먼저 장지연의 《대동교육회취지문》을 살펴보면 종교 · 신앙 · 정신 · 통일 · 용감 · 외계 · 국민 · 사상 · 습관 · 개혁 · 증진 · 시기 등 주요 어휘가 모두 쌍음절 위주의 근대어로 이루어져 있다. 양계초의 《신민설》도 거의 같은 성격의 어휘로 채워져 있다. 예를 들면 인류 · 발달 · 언어 · 풍속 · 사상 · 법제 · 정신 · 충돌 · 국가 · 애국 · 외국 · 주권 · 천국 · 권리 등이 모두 지금까지도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근대적 어휘들이다. 말하자면 장지연이 구사하고 있는 기본 어휘와 양계초가 구사하고 있는 신문체의 기본 어휘는 동일한 근대어 어휘 체계에 속하였다. 이 점에서 보면 장지연이 양계초 신문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여러 어휘들이 일본지식인들에 의해 만들 것이다. 양계초와 장지연은 이 어휘들을 같이 공용하고 있었다.

제2절 언론자유

1. 중국의 언론자유 의 출현

國者焉. 循物競天擇之公例, 則人與人不能不衝突, 國與國不能不衝突. 國家之名, 立之以應他群者也. 故眞愛國者, 雖有外國之神聖大哲, 而必不願服從於其主權之下. 寧使全國之流血粉身, 靡有孑遺, 而必不肯以絲毫之權利讓於他族.

중국의 언론 자유사상은 최초 서구 선교사부터 전파되었다. 아편전쟁 전에 서구 선교사는 이미 중국 외진 구역에서 선교하였다. 사실은 선교사는 선교명의로써 언론 자유사상을 선전하였다. 아편전쟁 이후 체결된 『남경조약』⁴⁹⁾을 계기로 선교사는 합법적으로 선교할 자유를 얻었다. 이후로 서구 선교사는 불평등한 조약과 서구 관원(官員)의 강력한 보호하는 상황에서 대륙 중심지에서 당당하게 서학을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선교사가 발행한 신문과 간행물이 신속하게 개시장까지 전파되었다. 선교사는 선교를 하면서 많은 외국 서적을 번역하였다. 이 중에 하나는 《대영국지-大英國志》이다. 《대영국지》의 내용은 영국 사회의 언론자유 상황을 소개하였다. 예를 보면

황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가 마칠 때만 황제는 가끔 회의 현장에 나올 수도 있다. 재정의 수입과 지출, 행정인원의 안배 등 모두 황제와 양원(兩院)은 책임을 지고 있었다. 양원은 가끔 관아(衙門)의 업무를 사찰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시사와 언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⁵⁰⁾

각 관아의 관원들 중에서 양원직무를 맡은 사람이 또 있다. 만약 관원들은 언론을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는 묵묵히 국사를 간섭할 수 있다. 국사는 황제, 대신, 서민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한다. ⁵¹⁾

49) 난징 조약(南京條約)은 1840년~1842년, 2년간 벌어진 제1차 아편전쟁을 끝내기 위해 1842년 8월 29일 청나라 조정과 영국과의 사이에 맺은 불평등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인해 홍콩 섬이 영국에 넘어갔고, 상하이가 개방된 계기가 되었다.

50) 《大英國志》卷八職政志略,王西清, 盧梯青輯5西學大成6,史學上, 卯編上,上海:上海醉六堂,1895年,第10頁,中國國家圖書館藏。原文:“議士會議,王不與聞,惟聚散時,王或親臨之,其余有事奚(顯隙),白執政法制禁,令財賦出入用人行政,王與兩院主之,兩院亦時稽察各衙門事務,盡所欲言,俾人人通曉即以時政言論,入新聞紙傳布于外”

51) 《大英國志》卷八職政志略,王西清, 盧梯青輯5西學大成6,史學上, 卯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영국의 의회와 의원은 모두가 표현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고위 인사에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 국왕은 의원의 언론자유를 간섭할 수 없다. 둘째, 신문은 국민으로 하여금 중요한 정무(政務)와 정부의 중요한 책략을 전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의회의 회의와 회의결과에 대한 보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여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반면에 국민은 정부의 책략과 활동을 알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공무원을 감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공무원을 선출하고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하이관진(遐邇貫珍)》⁵²⁾과 상해의《육합총담》⁵³⁾

編上,上海:上海醉六堂,1895年,第11頁,中國國家圖書館藏。原文:“諸衙門執政官員,兩院中人亦任是職,若不協于輿論,則國人推擇者,得默涉之國中政,王與貴人及百姓三等合議而行之”

52) 《遐邇貫珍》(英語: Chinese Serial) 是香港第一份以中文為主的報紙。創立於1853年8月的《遐邇貫珍》由香港英華書院以竹紙單面鉛印, 16開線裝書形式發行[1][2]。它向華人讀者介紹西方歷史、地理、科學、文學、政治、宗教各方面的知識及報導中西新聞。譬如《伊索寓言》、《地理全志》、《瀛繫放略》、新舊約全書等。[3]雖然《遐邇貫珍》大部分內容是中文, 但仍然有些故事是以英文刊登。《遐邇貫珍》也是第一份有廣告的中國報紙。出生於倫敦的傳教士麥都思便是《遐邇貫珍》的首名總編輯。《遐邇貫珍》到了1856年5月便停刊(第33号)。因為當時麥都思的繼任人理雅各擔任了英華書院的校長後, 校務繁忙。原話是:“辦理之人, 事務繁忙, 不暇顧及此舉耳”。另一方面, 原本用作印刷《遐邇貫珍》的印刷裝置, 後來售予一名叫王韜的華人, 並於1874年創辦香港第一份由華人主理的報紙——《循環日報》。完整的遐邇貫珍的影印版本在2006年出版。

53) 六合從談與1857年1月26日(咸豐七年正月朔日)上海創刊。上海第一家華文近代報刊。1843年倫敦布道會的傳教士們在上海開埠后陸續前來, 10年后洋人在華環境相對寬松, 《六合從談》由麥都思在上海所創墨海書館負責, 主編亞歷山大·韋烈亞力(Alexander Wylie)。在闡述其宗旨時說“今予著《六合叢談》一書, 亦欲通中外之情, 載遠近之事, 盡古

도 언론자유 진과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이관진》은 선교사에 의해 창간된 신문이며 서방국가 언론자유를 자주 소개하였다. 그 중에 중국 지식인이 발표한 문장도 있다. 그들은 서구 사회에 대한 깊은 흥미를 표현하였다. 《하이관진》은 표지에 발행 날짜 중국 연호(年號)와 간지(干支)대신, 처음으로 서기(西紀)로 표기해 놓았다.⁵⁴⁾ 《하이관진》은 서구를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다. 그런데 당시 중국 사회 상황으로 인해 《하이관진》에 실린 글들은 서명이 없다. 당시 중국 사회는 봉건사회를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 표현의 권력이 없다. 그래서 중국 저자들은 이름을 밝힐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들은 결국 청나라가 엄격하게 통제한 언론 장벽을 돌파했으며 중국 내부에서 자유의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다. 이것은 중요한 진보이다.

《하이관진》은 중국 강절(江浙)항구 지식인들에게 언론 공간을 개척하여 전에 서적과는 완전히 다른 현대 대중 미디어 매체를 제공했다⁵⁵⁾. 잡지 내용을 보면 종교와 과학관계 기사보다

今之變。見聞所逮，命筆志之，月各一編，罔拘成例。務使蒼穹之大，若在執掌；瀛海之遙，如同衽席。雖然六合叢談創辦于上海，但其目標却已經定向了全國，尤其是當時的五個通商口岸。韋烈亞力說：“通商設教，僅在五口，而示人足跡為至者，不知凡几，兼以言語各異，政化不同，安能使之盡明吾意哉？是以必須書籍以通其理，假文字以達其辭。但六合叢談發行并未持續多久，一年多便告停刊。

54) 《중국근대언론발달사1815~1945》, 차배근, p45.

55)口岸知識分子是美國歷史學家柯文對19世紀40年代以來,受聘于外人在中國口岸開展文教事以謀求生計的新的知識分子群落的稱謂,當中西文化在民間層面的最早之交匯之中,這個知識分子群落形成了自己獨特的身份特征,不同于最早睜眼看世界的具有一定政治地位和身份的開明官員和幕僚,這個群体都是既無科舉功名也無政治身份的民間知識分子;不同于托業西人洋行的華人/通事,這個群体都受過堅實儒家經典教育;不同于傳統民間知識分子以課徒授業或以耕讀為生,這個群体與西人朝夕為

시사 뉴스가 훨씬 많았으며, 뉴스난을 점차 확대하여 나중에는 전체 지면(매호12~24면)의 약 반을 차지했다.⁵⁶⁾ 강절(江浙)항구 지식인들은 《하이관진》에서 사회현실, 청조(淸廷)시무에 대한 언론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지만 그들은 영국의 개명한 정치 제도를 홍보했다. 청조의 정치 제도와 사회 현황에 불만과 비판은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하이관진》의 발행량은 정기 한번에 한 3000부를 발행하였다. 《하이관진》을 발행한 초기 홍콩 광저우 상해에만 살 수 있다. 후기에는 샤먼(廈門), Ningbo(寧波), 푸저우(福州)등 개방한 도시까지 풍미했다. 가끔 내륙 도시에서도 살 수 있었다. 1856년5월1일 《하이관진》은 폐간했다. 57) 그리하여 《하이관진》은 창간3년 만에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 종간호에 실은 종간사(終刊辭)에서 이 잡지의 운영 상황, 중국인들의 반응, 성과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해 놓았다.⁵⁸⁾

《하이관진》의 창간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다. 홍콩 그리고 특히 상하이(上海)에 있는 유럽과 미국인 거류사회에서 매우 큰 후원을 받았다. 작년에도 필요했던 본지(本誌)의 발행 경비는 그 대부분이 이들의 구독료로 충당할 수 있어, 모리슨 교육 선교회로부터 다만 소액의 보조금만 받았다. 그러나 중국인들로부터는 아무런 금전적 지원도 받지 못했는데,

伍供職于西人事業,以譯述和傳播西方文化謀生.相關詳細討論參見[美]柯文:《<在傳統与現代性之間>王韜与晚清改革》,雷頤,羅檢秋譯,南京:江蘇人民出版社,2003年.

56) 《중국근대언론발달사1815~1945》, 차배근, p45.

57) 參見沈國威:《<遐邇貫珍>解題》,沈國威,內田慶市,松浦章編著《<遐邇貫珍>--附解題,索引》,上海:上海辭書出版社,2005年,第94頁.

58) 차배근, 《중국근대언론발달사1815~1945》, p.46 재인용.

마땅히 구독해야 할 사람들의 수보다도 아주 적은 것이다. 극히 소수의 중국인들만 본지를 사서 보았다. 하지만 이들 중국인 독자는 모든 계층과 거주 지역을 골고루 망라하였다.

이와 같은 중간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비록 《하이관진》은 3년 만에 중간했으며, 중국인 독자도 적었으나, 배외사상에 깊이 뿌리 박혀 새로운 세계 사정에 무감각했던 중국인들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하이관진》은 뉴스를 가장 중시한 일종의 시사지로서, 그 뒤 중국에서도 다른 여러 시사 잡지가 나오게 만들었다.⁵⁹⁾ 그래서 《하이관진》은 중국에 가장 처음 나온 시사 잡지를 말할 수 있다.

오늘이 《하이관진》을 중간하게 된 것을 이 잡지가 중국인에게는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잡지가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그 간에 이 잡지는 정기 간행물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무감각한 중국인들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우주의 역사와 축적된 서양의 지식들을 학습시키고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유능하며 그런 일에 시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충분히 제시해주었다고 믿는다. 이 《하이관진》의 자리를 이을 수 있는 또 하나나 그 이상의 유사한 간행물들이 속히 나오게 될 것을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다.

다른 중요한 신문 잡지는 《육합총담》이다. 《하이관진》정간 반년을 지난 후 1857년1월26일 《육합총담》은 상해에서 창간되었다. 이는 《육합총담》이라는 월간 잡지였다. 이 《육합

59)차배근, 《중국근대언론발달사1815~1945》, p.46.

총담》은 상하이에서 처음 나온 잡지이자, 또한 중국 최초의 본격적 과학 잡지였다.⁶⁰⁾ 《육합총담》은 과학 잡지였지만 《육합총담》중에서 신문전문(新聞專欄)---“대서근사술략(泰西近事述略)” 중에서 구미사회 언론 자유의 상황과 유럽 봉건전제 자본주의 국가로 전변하는 과정 중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투쟁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예를 보면 《육합총담》은 서방 신흥 자본주의국가 언론 자유를 보호와 격려하는 것을 보도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

오스트리아 황제는 베네치아를 도착했을 때 부락국가-사르데냐 왕국의 신문은 오스트리아 황제의 불법행위를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사르데냐 왕국의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 귀국의 신문 중에서 누군가 우리 국군에게 야단쳤고 그 기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됐다. 사르데냐 왕국의 국왕도 회신을 했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 신문은 가자에 의해 쓰이고 우리 국왕은 신문 금지할 권리가 없고 만약 보도가 틀린 데가 있으면 소송하면 된다. 만약 보도가 불법한 데가 있으면 우리 국법대로 처벌하겠다. 황제는 이런 언론을 듣고 열을 받았다. 그는 당장 사르데냐 왕국에서 공사(公使) 3 명을 줄였다. ⁶¹⁾

스페인 대신들 모두 과업했다, 승상(丞相)을 대신한 사람이 수군 제독(墨羅)이다. 서민들도 새로운 정책을 보고 싶다. 승상(丞相)은 신문을 자유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⁶²⁾

60) 차배근, 《중국근대언론발달사1815~1945》, p.47.

61) 《六合叢談》 1857年第6号,第610頁. 原文:“奧地利帝至威尼斯倫巴多時,部國撒丁¹⁾部辟門新聞紙中,有言其不法者,帝聞之,令大臣寓書于撒丁王云,貴國中新聞紙,上有言我君之不善者,當懲之,撒丁王亦令大臣答云,新聞紙乃野官稗史所爲,王不設禁,若其論有不公處,可遣使至本國官衙,訴陳顛末,苟有不法,國有常刑,帝聞其言怒,即飾令其公使在撒丁者少三”.

62) 《六合叢談》 1857年第13号,第724頁. 原文:“西班牙大臣俱行罷政,代爲相者,水師提督墨羅也,民間想望新政,喜國相之得人,以許新聞

동시에 《육합총담》은 봉건주의 국가가 언론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보도했다. 내용은 봉건주의 국가가 언론 자유를 억제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

나폴리왕국⁶³⁾의 국왕은 매우 잔포해서 오스트리아의 병력으로 국민을 강제로 억누른다. 국왕은 서민들이 정사를 의론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민간에서 원래 신문사가 있지만 자유롭게 언론을 발표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잘못된 것을 있으면 감옥에 갇혔다. ⁶⁴⁾

나폴리왕국의 신사(信使)는 이렇게 말했다. 국내에 지식인들과 서민들은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극장은 문을 닫혔다. 차방, 인쇄소, 서고 등은 강제적으로 경영 중단을 시켰다. 우체국 배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편지는 자기가 우체국에 가서 보내야 된다. 전에 있는 관원은 서민 조반을 의심하기 때문에 서민 500명을 체포했지만 당장 서민 100명을 놓아주었다. ⁶⁵⁾

《육합총담》은 서구 의회의 자유적인 변론 형식에 대해서

紙局開設无禁也是夕局中張灯結彩慶賀”

63) 나폴리 왕국(이탈리아어: Regno di Napoli)은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나폴리를 거점으로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 존재하였던 왕국이다. 1282년 시칠리아인들에게 저항하여 옛 시칠리아 왕국의 시칠리아 섬부터 탈퇴한 후 정식 나라로 인정받지 못한 채 한동안 비공식 국가 취급을 받기도 하였다. 1816년 동군연합이던 시칠리아 왕국과 통합, 양시칠리아 왕국이 되었다.

64) 《六合叢談》1857年第1号,第531頁。原文：“那不勒國王待其民酷，藉奧地利之兵力，強爲挾制，毋許庶人創爲清議，得干國政，民間素設新聞紙局，今皆懼不敢發，人犯小過，卽置之獄，扑殺无(竹字頭，目大)，英法國聞而勸之，”

65) 《六合叢談》1857年第4号,第583頁。原文：“那不勒國有信至云，國中士庶，皆有悲憂愁慘之象，演劇所已閉，茶肆，印書房，書庫，強半停止，海關景況蕭索，信局中亦口无人，致信皆自往投遞，前有群眾，官吏疑其將謀逆！執五百人，訊而得釋者，僅百人而已。”

보도하여 국민과 정부는 충분히 언론자유를 나눌 수 있는 것을 알렸다.

“영국의회는 유대인에 대해서 자유적으로 민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정하였다. 이게 전에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부터 유대인의 사회지위가 높아지며 하원의 사람들은 유대인을 무시할 수 없다.”⁶⁶⁾

《육합총담》은 언론자유사상을 직접 선전하지 않지만 서구 사회 일련의 자유, 평등현상을 소개함으로써 중국국민들이 자유민주 평등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육합총담》의 현실적 의미다.

2. 양계초의 언론자유사상의 형성

서구 선교사는 서구 사회에서 사람은 시사 문제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토론하는 것을 소개하였다. 신문을 자유롭게 창간했을 때부터 중국 지식인들은 이 개념을 표현하려고 노력해보지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양계초는 1899년 4월 2일 《청의보》를 통해서 발표한 역문(譯文)-《各國憲法異同論》중에서 언론 자유와 저작 자유를 제출하였다. “각국의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부터 정해야 된다. 예를 보면 언론자유와 저작자유다.”⁶⁷⁾

66) 《六合叢談》1857年第10号,第677頁。原文：“英紳士議院中,公列條例,言繼自今猶太人亦得進院,參論民事,向未有此例也,呈之上院,不許,是議遂罷,猶太人之巨掌,曰老師差爾爲倫敦典論所探,今譯格不行,遂遜謝而去,衆民仍遴選之,下院中皆不欲漠視猶太人,有路思者,下院紳士也,又呈條例,稍異于前,行否尚未之知也”

67) 《清議報》第十二冊,1899年4月20日。 본문：“厘定臣民之權利及職分,

그는 언론 자유와 저작 자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가 없지만 중요한 가치를 갖춘다고 생각하였다. 이게 한자 문화권에서 처음 “언론저작지자유(言論著作之自由)” 같은 어휘이었다. 같은 해 6월 28일 그는 《청의보》를 통해서 발표한 《논 중국인 之 미래》 중에서 다시 사상자유를 제창하였다. “중세기부터 국가는 안정하고 외국이랑 교류하지 않는다. 게다가 역대 황제는 서민들을 우롱하게 만들었다. 자유사상의 전파가 막혔다.”⁶⁸⁾

같은 해 8월 26일 그는 《청의보》를 통해서 발표한 《자유 서序》중에서 이러한 자유 관념을 요약해서 간결하게 개념을 개괄하였다. 오늘이랑 또 같은 사상자유 언론자유 출판자유를 서술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 했다. “예로부터 각 지방 사람들이랑 교류하였다. 책을 읽고 항상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가장 깊은 감명은 “존 스튜어트 밀⁶⁹⁾은 이렇게 말하였다. ‘인류의 진화는 사상 자유, 언론 자유, 출판 자유를 뿐이다.’”⁷⁰⁾

皆各國憲法中之要端也，如言論著作之自由…”

68) 《清議報》第十九冊, 1899년 6월 28일. 본문: “中世以還，國勢統一，无外國之比較，加以歷代君相，以愚民爲術，阻思想之自由，故學風頓衰息。”

69)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1806년 5월 20일~1873년 5월 8일)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로서,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사회평론 등에 걸쳐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경험주의 인식론과 공리주의 윤리학,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사상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원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의 공리주의는 대부이자 스승이었던 벤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여기에 생시몽주의와 낭만주의를 가미해서 나름의 체계로 발전시켰다. 『논리학체계』, 『정치경제학원리』, 『자유론』 등, 전 33권으로 이루어진 전집이 있고, 그 밖에 동인도회사에서 일하면서 집필한 수많은 보고서를 남겼다. <http://ko.wikipedia.org/wiki>

70) 《清議報》第二十五冊, 1899년 8월 26일. 본문: “自東祖以來，与彼都人士相通，誦其詩，讀其書，時有所感觸。”而感觸最深者，莫過於“西儒約翰·彌勒曰：‘人群之進化，莫要于思想自由，言論自由和出版自由。’”

이제까지 중문세계에서 현대적인 의미를 갖춘 사상 자유 언론 자유 출판 자유의 개념은 비로소 정식으로 형성되다. 이후 언론 자유와 출판 자유사상은 오늘까지 계속 사용되어 중국 신문언론체계의 핵심적 개념이 되었다.

가. 언론자유와 주요 내용

양계초 초기의 언론자유사상은 스승인 강유위에서 유래된 것이다. 1895년 청일전쟁 패한 후 불평등한 『마관조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은 전례 없는 민족, 사회 위기에 들어갔다. 강유위는 다시 광서제에게 상서를 올렸다. 이후로 《공차상서》⁷¹⁾를 불렀다. 그는 상서했을 때 국가에게 포괄적인 자유 민주주의의 개혁을 실시하면서 자기의 언론 자유사상을 제출했다.⁷²⁾ 이때 양계초는 이미 《시무보》의 주필이며 언론 자유사상을 주로 《시무보》에서 표현하였다.

변법운동 실패 후 그는 일본에 망명하였다. 그는 일어 서적을 통해서 많은 서구 언론 자유사상을 접속하며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잠깐 정치활동을 정지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여유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는 일본에 있는 동안 《청의보》와 《신민

三大自由，皆備于我焉。

71) 1894年中日甲午戰爭，中國敗于日本。1895年春，參加乙未科科考的各省舉人正在北京考完會試，等待發榜。李鴻章与伊藤博文簽訂的《馬關條約》內割讓台湾及遼東，賠款銀二亿兩白銀的突然消息傳至，在北京應試的舉人群情激憤。4月22日，康有為、梁啓超寫成一万八千字的《上今上皇帝書》，內地十八省与中國東北舉人接連響應，共一千二百多人連署。5月2日，由康、梁二人帶領，各省舉人与數千北京官民集于“都察院”門前請代奏光緒帝。光緒帝啓用康有為、梁啓超等，史称戊戌變法。<http://baike.baidu.com/view/57536.htm?fr=aladdin>

72) 李澤厚：《中國近代思想史論》（修訂本），合肥：安徽文藝出版社1992年版，第406頁。

총보》를 창간하였다. 그는 후기 사상은 주로 이 두 신문에 반영되었다.

중국 국내 일부 학자들은 양계초의 후기 사상은 “언론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언론 독립”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필자는 아직도 양계초의 사상은 언론 자유사상이 전후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양계초의 언론자유 의 주요 내용은 요약해 보면 사상자유, 출판자유를 설명하고 중시하여 이를 근대 문명의 어머니라 하면서, 이 자유는 문명 보급의 불가결의 조건으로 설명하였다. 73)

양계초의 언론 자유에 대한 관점은 다음과 같다: 금언 정책(언권속박)은 중국에게 이미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많은 왕조는 정치통제를 하기 위해서 거의 다 금언정책(언권속박)을 실행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보면 명나라의 팔고문이다. 명나라는 건국했을 때부터 국민의 언론권력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모든 것이 통치자에게 불리하면 혹은 국가에 불만한 언론을 있으면 모두 엄중히 처하였다. 금언정책(언권속박)을 말하면 청나라의 문자옥⁷⁴⁾(文字獄)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그래서 고대

73) 양계초, 위의 논문, pp.713-714. 이 논문은 원래 1901년 12월 21일자 《淸議報》 100책 기념논문으로 게재된 것인데, 《飲冰室全集》에는 제목 가운데 本館 을 淸議報로 바꾸어 수록하였다. 본문:“思想自由, 言論自由, 出版自由, 此三大自由者, 視惟一切文明之母, 而近世世界種種現象, 皆其子孫也”

74) 문자의 옥(文字-獄)은 강희·옹정·건륭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필화 사건이다. 청조는 이민족(만주족)으로서 중국 한족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특히 반청적 경향이 흐르고 있던 강남 향신층의 비판적 동향에 과민하여 사소한 이유로 필화사건을 일으켜 억압하였다. 그 시발은 1663년의 장정룡 사건인데 옹정제 시대에는 청조를 이적이라 비판한 여유량·증정의 사건이 있고, 옹정제는 《대의각미록》

의 중국인마다 자기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국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근대사회 중국은 열강에 의해 침략했을 때 국민도 무관심하였다. 양계초는 국민으로 하여금 언론자유와 가치와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급격히 봉건 우민 정책을 비판했다.

양계초는 통치자가 자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밝혔다. “통치자는 서민 모든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였다. 이게 이기적인 행위이다.”⁷⁵⁾ 양계초의 비판은 분명히 금언(禁言)정책에 대한 역사적 폐해와 현실적 위해이다. 《시무보》에 나타나는 봉건 우민 정책에 대한 비판은 당시 지식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출판자유는 신문발행금지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여 민간에 자유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에 권리를 부여한다. 게다가 여러 층면에서 자세히 논증했다.

汪康年(왕강년)⁷⁶⁾은 언론의 기능이 “夏民權, 崇公理(민권을 광복할 수 있으며 공리를 추앙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여 신문

을 저작하여 청조 지배의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건륭제 시대에 들어서면 탄압은 더욱더 가혹해져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수집도, 그 목적의 일단은 내용의 검열에 있었다고 하며, 기휘(忌諱)에 저촉되어 금서로 전부 훼손된 것도 수천 부에 달하고, 일부분을 뽑아 내어 태워진 것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 <http://ko.wikipedia.org>

75)梁啓超:《論中國積弱由于防弊》,《時務報》第9冊,第555—556頁. 본문:“防弊者欲使治人者有權,而受治者无權,收人人自主之權,而歸諸一人,故曰私。”

76)汪康年(1860年—1911年11月14日),字穰卿,晚號恢伯、醉醉生。浙江錢塘(今杭州市)人。晚清著名人物,報刊活動家。光緒十六年(1890年)赴湖北,成爲張之洞幕僚(在張之洞家担任家庭教師)。光緒二十年(1894年)中進士。同年,清朝在甲午戰爭中戰敗后,汪康年思想上受到很大沖擊,開始轉向維新,光緒二十一年(1895年)參加上海強學會,與梁啓超、黃遵憲創辦《時務報》,理念與梁啓超不和,后来矛盾日益尖銳。<http://ko.wikipedia.org>

을 창간했다. 그는 우선 신문이 국민의 고통을 반영할 수 있고 또는 국민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양계초는 신문이 사람의 사상을 계몽 할 수 있고 널리 신문을 창간하는 것을 제창했다. 신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세계의 최근 일들을 널리 번역 소개해야 됨, 각성의 새로운 시정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야 됨, 각국과의 중요한 교섭 내용을 널리 살펴 밝혀야 됨, 정치, 학문, 예술에 대한 중요한 서적을 널리 소개해야 됨. 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회기풍이 열리고 폐기되었던 많은 일들이 점차 거론되고, 나라의 체통이 점차 세워지며, 인재가 점점 출현하게 되고, 십년 이후 신문 발행사의 규모는 점차 커질 것이라 전망하였다.⁷⁷⁾

《시무보》는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수정 헌법을 소개했다. 합중국 추가 맹약 15장, 제1장에서 민간 서민은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종교에서 자유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각자가 모두 자신의 주장대로 하고 국회는 지지하면 안 된다. 언론, 저술, 모임 등 사정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국회는 간섭하면 안 된다. ⁷⁸⁾ 양계초 또한 정부는 신문 사업을 보호해야 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놀란 새를 보호하는 것처럼

77)梁啓超:《論報館有益于國事》,《時務報》第1冊,第3頁. 原文:“然則報之例當如何? 曰:廣譯五洲近事,,,詳彙各省新政,,,博搜交涉要案,,,旁載政治學藝要書,,,。准此行之,待以歲月,風氣漸開,百廢漸舉,國體漸立,人才漸出,十年以後,而報館之規模,亦可以漸備矣。”

78)廈門蔡錫勇譯:《美國合邦盟約》,《時務報》第50冊,第343頁. 原文:“合衆國續增盟約十五章,第一章,民間立教奉教,各行其是,國會不得立例禁阻,至于言論著述,安分聚會,負屈請申等事,皆得任便行之,國會毋得立例拘制。”

신문업을 보호해야 한다.” 79)

나. 언론자유 의 요구

양계초는 청정부에 신문 발행금지 제도에 대한 폐지를 청하면서 언론인에 대한 요구도 제출하였다. 즉 신문업의 업계 자율이다. 그는 신문사가 자유롭게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출하였다. 신문사가 언론 자유로써 무책임하게 마음대로 보도하면 안 되며 신문을 보도할 때 책임을 지고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 그는 보도가 사실과 맞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는 신문보도 부실(不實)의 원인 다섯 가지를 분석하였다.⁸⁰⁾ 첫째, 신문의 스타일이 지저분하여 주로 사소한 저속한 사회뉴스를 보도한다. 둘째, 신문은 반향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보도를 날조함으로써 정확하게 보도할 수가 없다. 셋째, 기자의 성질이 저급하여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세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다. 넷째, 기자의 가치관이 평범하고 진부하다. 언론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 다섯째, 기자의 마음은 좁고 완고하여 반대한 의견을 견딜 수 없다. 양계초는 당시 신문 사

79)梁啓超:《論報館有益于國事》,《時務報》第1冊,第3頁. 본문:“國家之保護報館,如鳥弩子。”

80)梁啓超:《論報館有益于國事》,《時務報》第1冊,第3頁. 原文:“記載瑣故, 采訪異聞, 非齊東之野言, 卽秘辛之雜事, 閉門而造, 信口以談, 无補時艱, 徒傷風化, 其弊一也; 軍事敵情, 記載不實, 僅凭市虎之口, 閣怨夕鷄之嫌, 甚乃揣摩衆情, 臆造詭說, 海外已成劫燼, 紙上犹登捷書, 熒惑听聞, 貽誤大局, 其弊二也; 臧否人物, 論列近事, 毀譽凭其恩怨, 筆舌甚于刀兵, 或揚頌權貴, 爲曳据之階梯, 或指斥富豪, 作芭直之左券, 行同无賴, 義乖祥言, 其弊三也; 操抓發論, 匪有本原, 蹈襲陳言, 剽撮涂說, 或乃才盡爲憂, 敷衍塞責, 討論軟聞, 記述游覽, 義无足取, 言之无文, 其弊四也; 或譯泉稍廣, 言論足觀, 刪汰穢芻, 頗知体要, 而借闡宗風, 不出鄭志, 雖有斷章取義之益, 未免歌詩不類之憾, 其弊五也。”

업에 대해 보도부실(不實)의 원인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였다. 양계초의 분석은 당시 신문 사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신문 사업에게도 유익하다. 양계초는 신문이 고상한 종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보도가 엄격해야 하고 보도내용은 진실하고 정확하고 기자는 마음이 넓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출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신문 사업은 스스로 단속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양계초는 신문의 발행 과정에서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를 더 심각하다고 보았다. 잘못된 해위로 인해 완고파(頑固派)는 신문의 창간 발행에 간섭했다. 완고파의 간섭은 신문사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요컨대 양계초는 신문 사업은 스스로 단속하여 가치 있는 문장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하면은 완고파의 억제를 타파할 수 있고 국민이 언론자유에 대한 추구를 향상시켰다. 신문의 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제공했다.

제3절 언어 대중화

언어대중화 출현한 원인은 중국 근대 국민들은 문화수준이 낮아서 문어문을 읽기 힘들 것이다. 당시 유신 인사는 중국 신문 사업이 직면한 문제는 사회적 요구와 인민의 요구 사이에 큰 차이 있으며 문어문 신문과 민중의 문화 수준도 무척 맞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양계초 말하는 것처럼 : “사역 국민 중에서 글을 아는 사람이 오천만 명 넘지 않는다. 이 오천만 명도 중에

서 책이나 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이천만 명 넘지 않다”. 81)

이러한 상황에서 유신과 인사는 신문지로서 국민의 지혜를 열고 더 많은 민중을 동원하여 유신변법 운동에 참가시켰다. 그는 문어문 신문을 창간하는 동시에 백화 신문과 신문통속화에 대해서 새로운 탐색과 실천을 시작하였다. 결국 중국 근대 백화 신문은 문어 신문을 대체하며 중국 백화신문 사업에 기초를 놓았다.

1. 언어 대중화에 대한 논쟁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 더 많은 독자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 신문의 전파를 확대할 수 있을까 처음에 유신과 인사의 관점은 동일하지 않았다. 유신 인사 정관응(鄭觀應)⁸²⁾이 신문 언어 특징에 대해서 “모든 신문이라면 다 쉬운 문장이다. 신문을 읽고 나서 지혜를 열고 진리와 공론을 이해하고 남에게 속을 수 없다.”⁸³⁾고 말하였다.

81)梁啓超.梁啓超全集·中國積弱溯源論[M].北京出版社,1999:416 原文：“四万万人中，其能識字者，殆不滿五千万人也。此五千万人中，其能通文意、閱書報者，殆不滿二千万人也。”

82)鄭觀應 (1842年7月24日－1922年5月)，原名官應，字正翔，號陶齋，又号居易、杞憂生，別号待鶴山人或羅浮侍鶴山人。廣東香山縣（今中山市）三鄉雍陌人。中國近代著名文學家、思想家和實業家。他是中國近代最早具有完整維新思想體系的理論家，揭開民主與科學序幕的啓蒙思想家，也是實業家、教育家、文學家、慈善家和熱忱的愛國者。http://ko.wikipedia.org

83)夏東元編.鄭觀應集（上冊）·日報上[M].上海人民出版社,1982:346 原文：“蓋新聞者，淺近之文也，增人智慧，益人聰明，明義理以伸公論，俾蒙蔽欺飾之習一洗而空。”

그러지만 《국문보(國聞報)》의 창설자-옌푸는 오히려 이런 관점을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문사(文辭)로써 표현한다. 그는 좋은 내용을 반드시 적당한 문사로 표현해야 하며 굵은 험령한 단어는 진리와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창작 이론으로부터 말하면 이런 관점이 틀리지 않는다. 이른바“義正辭嚴”, “情文并茂”은 말 그대로 문장을 쓸 때 문장 내용과 형식이 통일하게 이뤄야 한다 84) 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옌푸가 쉬운 백화문과 시무문체는 완벽한 단어가 아니라고 여기고 “중국지미문자 (中國之美文者)⁸⁵⁾는 사마천(司馬遷), 한유(韓愈)”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양계초는 옌푸의 관점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옌푸에게 편지를 보내며 번역한 문자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며 심오한 학리에 대해서 유창한 문필로 나타내는 것을 주장하였다. 옌푸는 양계초의 관점을 반박하였다. “즉 너는 고서를 제대로 잘 못 읽는다. 그래서 너는 아름다운 문장을 이해 못 한다.”⁸⁶⁾

옌푸는 신문 주필로써 이런 관점을 신문 문체에 쓰인 것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사실은 옌푸는 신문 문체를 확실히

84) 嚴復. 嚴復集·與梁啟超書(第三冊)[M]. 中華書局, 1986:516 原文: “文辭者, 載理想之羽翼, 而以達情感之音聲也。是故理之精者, 不能載以粗曠之詞, 而情至正者, 不可達以鄙倍之氣。中國文之美者, 莫若司馬遷、韓愈。”

85) 중국에서 글을 가장 잘 쓴 사람이 “미문자”라고 한다.

86) 嚴復. 嚴復集·與梁啟超書(第三冊)[M]. 中華書局, 1986:516-517 原文: “若徒爲近俗之辭, 以取便市井鄉僻之不學, 此于文界, 乃所謂陵遲, 非革命也。且不佞之所從事者, 學理邃曠之書也, 非以餉學僮而望其受益也。吾譯正以待多讀中國古書之人, 使其目未睹中國之古書, 而欲稗販吾譯者, 此其過在讀者, 而譯者不任受責也。”

히 무시하였다. 옌푸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 사람들은 예전에 쓰던 것을 중시하고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부주의하다.” 반면에 “서구 사람들은 예전에 사용하던 것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 87) 그는 신문 언어 영역에서 잘못하였다. 즉 그는 고대 모든 것을 좋아하며 현재 있는 것을 싫어한다. 신문발행사는 옌푸의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신문사가 편이한 문사를 쓰면 신문사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였다.”88) 하지만 사실은 전혀 반대이다. 당시에 큰 영향을 미친 신문은 바로 편이한 문사로써 쓴 문장이다.

유신 지식인들은 왜 양계초의 시무 문체를 좋아할까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당시 국민의 문화수준이 낮아 알기 때문에 국민 지혜가 열리려면 신문이 통속화를 이뤄야 한다. 양계초는 “신문체”를 창작하며 제창하였다. 당시 시무문체는 쉬운 언어 그리고 자유분방한 문풍으로써 모든 독자를 정복하였다. 양계초의 “신문체”는 알기 쉬운 백화문이 아니지만 신문 통속화의 첫 걸음이다.

2. 양계초가 만청 문학 대중화에 미친 영향

아시다시피 중국 전통 고전 문학은 “언문분리(言文分离)”의 언어체계를 계속 사용하였다. 문어문은 고전 문학을 나타내는

87)嚴夏.嚴夏文集·論世變之亟(第一冊)[M].中華書局,1986:1 原文：“中之人好古而忽今，西之人力今以勝古。”

88)嚴夏.嚴夏集·與梁啓超書(第三冊)[M].中華書局,1986:517 原文：“言龐意纖，使其文之行于時，若蜉蝣旦暮之已化。聲之渺者，不可同于衆人之耳；形之美者，不可混于世俗之目；辭之衍者，不可回于庸夫之听。”

독특한 언어도구이다. 일상생활 사용한 언어는 입으로 소통하는 도구(수단)뿐이며 문학을 나타내는 도구는 아니다. 문장은 문어 문으로만 표현하면 문학적 가치를 가지다. 고전문학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생활용어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 반드시 문어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중국 고전문학은 역사적 발전 중에서 세 가지 결함을 야기하였다.

첫째, 언어의 양립성이다. 진나라부터 고전문학은 고정하고 통일한 서면진술 모델(모식)을 채용하였다. 따라서 중국인들의 읽기와 표현은 이중화를 때문에 이런 언어모델은 일상적인 언어의 영향을 덜 받았다. 문어문 언어모델은 정련, 간결, 고아 등등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성, 논리성, 등등 내용은 애매하여 '신민' 문화계몽의 중임을 담당할 수 없다.

둘째, 문체의 격식화이다. 이런 경직, 통일, 고정된 문체 모델은 국민 개성적인 표현을 최대한 제한하였다. 그래서 다양한 사상이 통일한 문체모델에 의해 제한되어 자유롭게 확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성적인 사상과 다원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심하게 제약되었다.

셋째, 창작과 읽기의 곤란함이다. 저자는 창작할 때 현실 생활 속에 사용했던 문체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면 저자에게 사유와 표현의 난이도를 강화하였다. 결국 창작의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워졌다. 국민들에게 문어문 작품을 이해하기 어렵다. 문학은 결국 소수 계층의 특권이 되며 보급하기 어렵다.

그래서 양계초는 문화계몽을 일어나게 시켰다. 문학은 문화계

몽수단으로써 우선 내용을 “신민”의 문화 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되었다. 그리고 문학내용의 혁신은 문학모델(형식)을 변환하게끔 만들었다. 즉 백화문과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 문체구조가 확립되며 “신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에서 만칭 문학모델은 대중적 문학모델을 향해 접근하였다.

제Ⅲ장 양계초의 언론사상이 대한제국 언론에 미친 영향

1. 대한제국 학자들의 양계초 수용

한국 근대 언론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외래사상은 일본과 미국의 영향도 있었지만 중국 그 중에서도 양계초의 언론사상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일부 밝힌 바 있다.⁸⁹⁾ 양계초의 사상은 중국 청나라 말기 형성되었다. 그 때 중국은 열강의 침략을 받고 있었으며 망국할 위기에 있었다. 대한제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양계초의 사상이 대한제국에 들어오자 대한제국 지식인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표적인 인사들이 장지연, 박은식,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등 있다. 그때 대한제국 학자들이 중국의 엄복, 강유위, 양계초 등의 주장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였다. 이들의 주장과 사상은 주로 중국 또는 일본에서 이들에 의해 발행된 신문과 잡지를 통해 수용되었다.

당시 양계초의 사상이 소개된 주로 대표적인 신문지가 《황

89) 김영희, "황성신문 관련 인물들의 언론사상"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 학술발표회논문집》.

성신문», 《대한매일신보», 《태국신문》 등이 있다. 1898년 9월 5일 《황성신문》은 신문이 창간되면서부터 당시 중국에서 강유위, 양계초 등이 주도한 중국 정부의 변법개혁운동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하였다.⁹⁰⁾ 그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와 학회의 기관 잡지도 있었다. 예를 들어 《대조선독립협회회보», 《대한협회회보», 《서우», 《서북학회월보», 《대한자강회월보》등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양계초의 사상을 소개된 것은 독립협회의 기관지 《대조선독립협회회보》가 1897년 2월 15일 제2호에 실린 “청국 형세의 가련(淸國形勢的可怜)”이란 글이었다. 양계초라는 중국의 애국지사가 중국의 정세를 폴란드 멸망에 비유하여 중국의 정치적 혼란과 무능을 지적하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자강을 도모하지 않고 강대국에 의지하려는 정책을 쓰면 오히려 망국을 재촉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양계초가 1896년 7월 21일 《시무보》 제3책에 기고한 “파란멸망기(波蘭滅亡記)”를 읽고 쓴 것으로 생각된다.⁹¹⁾

그 외에 《황성신문》도 양계초를 소개했다. 1898년 5월 창간호부터 당시 중국의 변법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도하였으며, 변법운동에 호의적이었다.⁹²⁾ 아울러 중국변법운동에 대한 상황과 양계초가 일본으로 망명 후의 활동을 보도하였다.

일본으로 망명한 양계초는 1898년 12월 23일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순간 신문 《청의보》를 창간하였다. 《황성신문》도 즉

90) 《황성신문》, 1898.9.28., 10.6, 10.8.

91) 《시무보》(영인본), 1896.7.21., 제3책(북경: 中華書局, 1991).

92) 김민환, 《개화기 민족지의 사회사상》(나남, 1988), pp.103-104; 백영서, “대한제국기 한국언론의 중국 인식,” 《역사학보》 제153집(역사학회, 1997), pp.123-124.

시적인 《청의보》 창간 소식을 보도하였다.

청의보는 요코하마에 在留하는 淸國人이 방행하는 청의보를 客年 臘月 23일에 초호를 發刊하였는데 기자는 양계초라 상해 시무보에 주필하던 스름들인디 初號 부터 支那哲學新論과 淸國政變始末이란 문제의 두 논문을 발표한다하고 本領은 宇內治亂의大機가 一을 由하야 西東의 時局이 잇스니 此時局을 痛論하야 內으로大清 四百兆民의 惰眠을 警戒하고 外으로 東方諸識者의 敎導함을 瞻仰하다 하였더라.⁹³⁾

그 후 《황성신문》은 자주 중국의 부패와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책을 제시한 《청의보》의 논설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상황을 대한제국의 실정에 비추어서 설명하였다.

그 외에 황현도 1898년 중국에서 일어난 변법운동을 설명하면서 그 주도 인물인 강유위, 양계초 등에 대해 평가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양계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양계초는 이때 나이 28세로 타고난 재주가 특이하게 뛰어났으며 문장이 아름답고 박식하였다. 일본에 있으면서 《청의보》를 저술하며 당대를 비판하였고, 《음빙실집》의 방대한 저작을 하였는데 그 의론이 중횡으로 뛰어나고, 방대하여 힘써 번역하여 오대주에 퍼졌으며 독자들은 혀를 내둘렀다.⁹⁴⁾

93) 《황성신문》, 1899.3.1., 논설, “ 淸議報의 東亞事勢를論하여日…”로 시작하고 있다.

94) 黃玹, 이장희 역, 《梅泉野錄》(대양서적, 1978), 卷之三 광무 4년(1900)7월, p.232, 이 기록도 각주45)처럼 양계초가 음빙실이란 호를 쓰기 이전에 음빙실이라는 표기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엽건곤은 이에 대해 《매일야록》 권지삼 제4책이 광무3년 올해에서 광무7년 계묘까지의 기록으로 책을 엮은 광무7년(1903) 당시는 이미 《음빙실문집》이 한국에 보급된 시기이므로 그냥 음빙실집으로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엽건곤, 앞의 책, p.121, 각주 6) 참

엽건곤(葉乾坤)도 양계초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이 시기 대한제국의 지식인들이 한문에 능통하였으며, 어떤 외국어보다 한문으로 된 중국의 신문과 그의 저서를 읽기가 쉬웠고, 그의 뛰어난 문장력과 탁월한 통찰력 및 분석력을 바탕으로 개진된 논의가 설득력이 있었 분석하였다. 또한 그가 유학에 대한 조예가 깊어 새로운 사상과 서양문화의 도입에서 동양의 것을 참작하고 무리 없이 선별하여 소개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⁹⁵⁾

2. 양계초 언론사상의 영향

대한제국 애국 인사들이 양계초의 정치사상, 언론사상등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발전했다. 대표 인물들은 앞에 소개했던 각 신문지의 주필들이다. 그들은 대부분이 독립협회 운동에 참여하고 계몽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신문 창간 당시부터 신문의 역할과 유용성, 기자의 자세, 신문의 논조 등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신문에 대한 인식이 점차 형성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양계초의 언론사상을 대한제국의 상황에서 수용되어 취사선택되고 소화되었을 것이다. 또한 자기의 언론에 관한 인식을 심화, 발전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들은 양계초 언론사상 중의 언론자유, 거색구통(소통), 고정보도, 개민지 및 신문체등 내용을 거의 전체적인 소개하고 활용했다.

조.

95)葉乾坤, 앞의 책, p.225.

가. 언론자유에 관한 논의

양계초가 《청의보》 제 100 책을 기념하여 기고한 “청의보 제 100 호 축하 및 논 보관의 임급 및 본관의 경력”을 자주 활용하여 신문의 역할, 영향력, 언론의 자유 및 구미 각국의 신문의 위상 등을 설명하였다. 구한말 많은 신문들이 이 글 안에 제시한 관점과 사상을 주로 수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1906년 9월 25일《대한매일신보》는 논설 대신 게재한 별보에서 그 일부를 번역, 소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近世泰西各國之文明이 日進月邁호야 觀已往數千年호면 胎如別關新 天地호니 究其所以致此면 何自乎아 或曰是法國大革命之産兒라호나 産此大革命者誰乎아 或曰中世神權專制政治之反動力라호나 喚起此反動力者誰乎아 或曰新學新藝勃興之結果也라호나 勃興此新學新藝者誰 乎아 無他라 사상자유와 언론자유와 출판자유니 此三大自由者가 實惟 一切文明之母니 近世世界種種現象이 皆其子孫이니 報館者는 實會萃 全國之思想言論호야 或大或小호며 或精或麗호며 或莊或諧호며 或激或烈호야 一一紹介之於國民호니 故로 報館者는 能納一切호며 能吐一切호며 能生一切호며 能滅一切호나니 ...96)

이와 같이 사상자유, 언론자유 및 출판자유 등의 3대 자유를 서구 문명의 원동력으로 보고, 사상·언론자유를 매개체로서의 신문의 절대 적인 역할과 책임을 설명한 것이다.

그 외에 《황성신문》 1907년 1월 23일 논설에는 “지식은 자유의 원인”이라는 글이 실렸고 1909년 2월 17일 논설에는 “我國報館의 종족”이 실렸다. 《대한매일신보》에서 1909년 3

96) 《대한매일신문》, 1906.9.25., 별보 “報館之勢力及責任”.

월 10일 논설이 “삼대 자유의 공(功)”도 등재되었다. 이들은 대한제국이 현재 참경에 빠진 것은 언론 속박 때문이라고 보고, 세계의 3대 자유인 사상 자유, 언론 자유, 출판 자유 가운데서 언론 자유를 가장 중시할 것으로 설명하였다. 언론 자유를 이루면 출판은 물론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상도 알 수 없게 되며 언론의 자유를 잃는 날은 정치의 자유, 생계의 자유도 잃게 된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를 다른 모든 자유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구한말 신문 인사들이 양계초의 3대 자유사상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추가시킨 것이다.

나. 신문의 역할에 관한 논의

1) 소통의 역할

신문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바로 소통이다. 양계초의 《시무보》창간호부터 《논보관유익어국사》에서 한 논설을 통해서 소통이 신문의 주요 역할로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國之強弱，則於基通塞而已”라고 하여 나라의 강약은 소식과 정보가 원활 하게 전달되는가, 막혀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중국이 수십 년 수모를 당한 것은 상하가 불통하고 내외가 불통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막힌 것을 통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문은 그 첫 단계로서, 소통을 위한 이 목후설적 작용을 신문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소통을 위해 언론이 할 일로 그가 제시한 것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세계의 최근 일들을 널리 번역 소개 하는 일이다.(廣譯五洲近事) 이를 통해 독자들이 그 상황과 강약의 원인을 알게

하여 우물안 개구리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각 성의 새로운 시정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는 일이다. (詳錄各省新政) 이를 통해 독자들이 신법의 유익함과 그 취지 및 정책수행의 어려움을 알게 하면 반발을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셋째는 각국과의 중요한 교섭내용을 널리 살펴 밝히는 일이다. (搏搜交涉要案) 독자들이 중국의 모욕받는 현실을 알게 하여 분발해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끝으로 정치, 학문, 예술에 관한 중요한 서적들을 널리 소개하는 일이다. (旁裁政治學藝要書) 독자들이 실질적인 학문의 원류를 알아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고, 과거시험을 위해 사장지학에만 전념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회기풍이 열리고, 폐기되었던 많은 일들이 점차 거론되고, 나라의 체통이 점차 세워지며, 인재가 점점 출현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소통을 위해 유신변법사상을 널리 전파해서 중국 국민을 일깨워 점차 중국 스스로 강해지도록(自強)하는 일에서의 언론의 역할을 주목한 것이다. 양계초는 또한 서방국가에서 언론이 국가강성에서 하는 큰 역할에 주목하면서 한편으로 중국에서도 예로부터 언론 활동이 있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전통문화를 뿌리(根)로 하고 서구 자본주의 민주사상과 근대 문화의 영향을 잎(吐葉)으로 한 그의 관점을 제시하였다.⁹⁷⁾

대한제국 지식인들이 신문의 역할에 관해서 중국지식인들과

97)毛以亨, 송항룡 역, 앞의 책, pp.97~99.

같은 생각이었다. 《독립신문》에서도 이미 이 소통 역할이 신문의 주요 역할로 제시되고 있다. 소통의 하위 항목으로는 상의 하달과 하의상달, 국내외 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과 조선의 상황을 외국에 알리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독립신문》은 1897년 5월 1일자 논설에서 “세계 물정 알기와 세상 공론 알기는 신문 외에는 더 긴한 길이 없으니”라고 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에는 신문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독립신문》은 신문을 정부와 국민 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백성에게 알려 주고 백성의 뜻을 정부에 알려 주는 것이 신문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백성의게 전할터이요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할터이니 만일 백성이 정부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에 일을 자세히 아시면 피츠에 유익한 일만이 잇슬터이요. 불청한 민원과 의심하는 생각이 업서질 터이음⁹⁸⁾

특히, 하의상달과 관련해서 《독립신문》은 신문을 백성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창구로 인식하고 있다.

《황성신문》 관련인물들은 정보를 유통시키는 보관⁹⁹⁾의 역할에 대해서 “...國勢盛衰는 本乎也道消長하며 世道消長은 因乎風

98) 《황성신문》, 1899(광무3년).11.30.논설.

99)당시는 신문사를 보관으로 불렀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중국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중국에서 ‘報’는 한국의 신문을 말하며, 중국에서 ‘新聞’은 뉴스를 뜻한다. 戈公振, 《中國報學史》(대북:대만학생서국, 1982), pp.9~10, 25 참조. 그러나 실제 중국언론사에서 ‘報’는 신문 뿐만 아니라 잡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氣通塞이니 신문은 爲開拓世運하여 宜發風氣作也니라”하여¹⁰⁰⁾ 나라의 성쇠는 풍기통색에 달려 있는데 신문은 세운을 개척하고 풍기를 열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다음의 글을 통해서도 나라의 강약이 통색에 달려 있는데 신문사의 붓이 소통의 실마리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 國之強弱이 在乎通塞而已의 血脈이 不通則病하고 學術이 不通則陋하니 惟國도 亦然해야 上不不通故로 無宣德逢情之效하며 內外不通故로 無知己 知彼之能이나 有國者一憂之해야 去塞求通이 厥道非이로디 而報館之筆이 其導端也라 今에 五洲萬國에 無不置報館者해야 政府之保護報館이 如藏金寶하며 人士之嗜閱報章이 如求酒豊해야 閱報 愈多에 其人愈智하고 報館愈多에 其國益強은 惟通之고로 …¹⁰¹⁾

이 글의 여러 내용이 기자 집필시의 자세나 외보 등의 논의에서도 원용되고 있다. 이것은 《황성신문》의 주필들이 1903년 《음빙실문집》이 간행되기 전 《시무보》에서 이 내용을 직접 읽었으며, 그것을 수시로 참고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문은 신문의 소통 역할을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치적 역할

변법시기의 중국사회는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격변기였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인들은 정치적 격변기에는 언론에 대해서도 정론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재한제국도 마찬가지로 《독립신문》의 논설에서 이 정치적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정치적 역

100) 《황성신문》, 1899(광무3년).11.30.논설.

101) 《황성신문》, 1900.5.1., 논설논설“答迂齊先生”

할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애국애민과 관련된 것이다. 102) 예컨대 신문의 발행 목적을 “우회로 국가를 돕고 아로로 동포 형대를 구제하도록 힘이라”고 밝히면서 이어서 “아모조록 우리 신문을 보고 애국애민 호는 관민들이 되기를 벌이고 흘것이라”(1897년 12월 16일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문을 ‘인민의 제일가는 친구’(1897년 5월 1일자)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언급들은 당시의 신문발행 세력들이 신문을 애국애민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독립신문》지면에서 애국애민 다음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여론 선도 기능이다.《독립신문》은 논설에서 ‘공론’, ‘중론’, ‘공담’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신문의 선도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¹⁰³⁾ 또한 1899년 1월 10일자 논설에서는 “당금은 세계 도처에 신문이 공론을 통하는 대로가 돼야”라고 하여 신문을 여론 형성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의 정치적 역할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다. 또한 1899년 1월 27일자 신문에서 당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신문 조례를 만들려 시도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악법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면 “인민의 억울한 일과 관리의 탐학 호는 정스와 정부의 실책은 호 말도 못홀터이니 신문이 무슨 공효가 잇스리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¹⁰⁴⁾ 즉 언론 통제에 의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 신문은 아무 소용이 없

102) 《독립신문의 언론사상》,채백, 언론과 정보 제2호(1996.2).89p

103) 《독립신문의 언론사상》,채백, 언론과 정보 제2호(1996.2).90p

104) 《독립신문의 언론사상》,채백, 언론과 정보 제2호(1996.2).91p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 만큼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적 역할

변법운동 시기의 신문하면 일반적으로 가정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국민계몽의 역할이다. 유신파의 지식인들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서구의 근대적인 사상과 문물제도를 소개하였다. 대한제국은 중국이랑 비슷한 문화배경과 가까운 지리 관계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서구의 근대적인 사상과 문물제도를 소개하여 대한제국이 근대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 한다는 것이 개화기 신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독립신문》의 언론 관련 논설에서도 이 교육적 역할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신문이 국민을 교육하고 계몽하여 개명진보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1898년 4월 14일자 논설에서는 “신문이 나라에 등잔 불 갖한 것이요 인민의 선생이라 몇 만명의 선생 노릇하는 직무가엇지 가뵈 | 압다고 말을 하리요”라고 하여 신문의 교육적 역할을 나라의 등잔불이요 선생에 비유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데국신문》은 이목의 개념에 후설의 개념을 추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나라의 강약은 통하고 막힘 거슬 불지니 혈막이 통치 못하면 병이 나고 학문이 통치 못하면 먼데 일을 알 슈 업고 말을 통치 못하면 남의 사정 을 알 슈 업는고로 그 사이에서 간사헌 일이 심기고 안과 맞기 통치못하고로 남의 일을 알고 니일을 아는 것이 여러 가지로데 신문에서 더 속흔거시 업느니 신문이란 거슨 전국인민의 귀와 눈과 목구멍과 셔빠닥

이라 사람이 만일 그 이목과 후설이 업스면 큰 병신이라 터이니 ... 이목과 후설을 리롭게흐야 병신을 널으키기는 신문 갖흔 것이 업는지라그런고로 문명데국에서는 신문사의 만코적은 거스로 나라의 성쇠를 보거니와 ...¹⁰⁵⁾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신문이 국민을 교육하여 계몽하고 깨닫게 하는 교육적 역할을 신문의 매우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105) 《테국신문》, 1903.3.9.론설“성은을 보담한 일”.

Ⅲ. 결론

본 연구는 양계초의 생애 및 주요 언론사상을 요약 정리하였다. 대한제국시기 지식인들에게 수용된 양계초 언론사상의 주요 논리를 살펴보고 대한제국시기 지식인들이 그의 언론사상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양계초가 신문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고찰하였다.

양계초는 1898년 중국 변법운동에 참여하였다. 일본 망명 후 서구식 언론사상의 영향을 받아들여 중국의 실패의 원인을 여러 가지를 분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각 분야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당대에 이미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언론인이며 정치사상가, 사학자, 교육자로 평가받았다. 그는 《시무보》에서 신문의 사대 준칙을 내세웠는데 이 준칙은 현재 신문 사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는 당시 국민의 문화수준이 낮아 국민을 계몽하자면 신문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양계초가 백화문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양계초의 신문체는 알게 쉬운 백화문이 아니었지만 이후 백화문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양계초의 저작 《음빙실문집》은 1903년 간행된 이후 대한제국에 보급되어 개화와 개명에 관심을 갖는 지식인들은 중심으로 널리 읽히고 소개되었다. 본 연구자도 이 관점을 인정한다.

대한제국 언론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외래적 요인들을 말할 때 주로 주목해온 것이 일본과 미국의 영향이다. 일본의 영향에 대한 관심은 최초의 근대신문인《한성순보》의 창간과

정에서 박영효가 일본의 사상가 후쿠자와(福澤諭吉)의 권고로 신문 발행을 도울 일본인 3명을 데리고 왔던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본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한편 미국 언론사조의 영향에 대한 관심은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운동을 주도한 서재필과 윤치호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들의 언론에 대한 견해와 인식에서 구미의 자유주의 언론사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그 후의 근대언론의 성격과 추구하는 목적이 《독립신문》의 사상적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에 지식인들이 당대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한문에 능통하여 어떤 외국어보다 한문으로 된 중국의 신문이나 저서를 읽기가 쉬웠다. 그가 서구문명의 수용을 제창하고 애국계몽사상을 고취한 많은 문장들에 대해 한문에 능통한 대한제국 지식인들도 크게 공감했다. 대한제국 시기에 신문들을 살펴보면, 양계초의 논설과 저서에 대해 많이 소개했다. 또한 《황성신문》은 주로 중국 변법운동에 대한 상황과 양계초가 일본으로 망명한 후의 활동을 보도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부패와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책을 제시한 《청의보》의 논설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상황을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서 설명하였다. 조선의 양계초 언론사상수용은 서구식 언론사상의 확산, 대중화이었다. 이상 글을 보면 대한제국 지식인들이 공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언론사상이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898년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신문발행에 참여한 인물들과 일부 지식인들은 직접 신문을 통해 그의 주장과 논설을 읽고, 이를 수용하여 신문에 소개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애국계몽사상 시기 대

한제국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방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이 시기 양계초의 논의와 주장은 언론인과 일부 지식인만이 직접 접해 보던 데서 나아가 훨씬 확대되고 대중화되어 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신문이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소통은 신문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하였다. 그는 나라의 강약은 풍기통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다. 대한제국 지식인들 서재필, 윤치호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들의 언론에 대한 견해와 인식에서 구미의 자유주의 언론사상을 나타낸다. 《독립신문》은 신문의 정보 제공역할을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의 정치적 역할과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다.

신문이 국민을 교육하여 계몽하고 깨닫게 하는 교육적 역할을 신문의 매우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은 지금 봐도 틀리지 않다.

양계초의 언론사상 수용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전에 개화파들이 이미 서구식 자유 언론사상을 직접 소개하는 바 있었다. 대한제국시기에 신문발행에 참여한 인물들은 대체로 당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이거나,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들이었다. 이들에게 중국의 전통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서구의 자유 언론사상을 자신의 방식으로 소화하여 설명한 양계초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설득력 있는 논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지식인들도 점차 변법사상으로 인식을 전환하면서 중국의 전통문화의 틀을 대한제국의 시대 상황에 접목시키려 하였

다. 이러한 방식으로 언론에 관한 양계초의 사상과 논리를 수용하려 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제국 시기 지식인들이 서구의 자유언론사상을 양계초를 통해 수용함으로써 중국 언론인의 관점에서 소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전에 개화파들이 이미 서구식 언론사상을 직접 소개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양계초의 언론사상 수용은 비록 최초로 소개된 것은 아니지만 대한제국시기 개신유학자들의 언론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

단행본

- 김민환, 『한국언론사』, 나남출판사, 1996.
- 김봉희, 『한국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이화여대출판부, 1999.
- 신진(辛進), 『문체와 문체론』, 동아대학교출판부, 1998.
- 엽건곤, 『梁啓超와 古韓末 文學』, 법전출판사, 1980.
- 윤혜영, 『청말변법사상-중국사』, 지식산업사, 1986.
- 차배근, 『중국근대언론발달사1815-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학위논문

- 김명애, 『韓中日 三國 近代初期 新聞比較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1974.
- 김영순, 『구한말 한국신문의 서적광고와 그 특성-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 2000.
- 조보로, 『신채호와 양계초의 문학관 비교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 2010
- 종품애, 『中國의 近代 新聞 成立에 關한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 1971.

정기간행물

- 김경선(金京善), 『中國文學與韓國文學影響關係의 考察-梁啓超與 魯迅』, 高麗大學漢字漢語文化研究所·北京外國語大學 海外漢學中心 國際學術大會, 2010.

- 김영문, 『장지연의 양계초 수용에 관한 연구』, 韓國中國語文學會, 2004.
- 김영민, 『한국 근대 서사 양식의 발생 및 전개와 매체의 역할 -1890년대에서 1910년대 말까지 양식 변화를 중심으로』, 중간보고서, 2004.
- 김영희, 『대한제국시기 개신유학자들의 언론사상과 양계초』, 韓國言論學報, 1999.
- 양귀숙, 『梁啓超의 詩文에 나타난 朝鮮問題 인식』, 中國人文學會 (春季), 2003.
- 이용주, 『근대기 중국에서의 과학 담론: 진독수와 양계초를 중심으로』, 忠南大學校 儒學研究所 論文集, 2012.
- 최기영, 『한국 근대 계몽사상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 최형욱, 『조선의 梁啓超수용과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9.
- 한무서(韓武熙), 『丹齊와 任公의 文學과 思想』, 『文學研究所』, 제2집 1977.

-중국-

단행본

- 方漢奇, 『中國新聞事業編年史』, 福建人民出版社, 2000.
- 胡太春, 『中國近代新聞思想史』, 山西教育出版社, 1996.
- 李華與, 吳嘉勛, 『梁啓超選集』, 『新民說』, 上海人民出版社, 1984.
- 梁啓超, 『飲冰室合集』, 北京中華書局, 1936.
- 李哲厚, 『中國近代思想史論』, 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 2003.
- 吳廷俊, 『中國新聞史新修』, (2008)。

嚴夏，嚴夏集·與梁啓超書（第三冊），中華書局，1986.

張之華，『中國新聞事業史文選』，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9.

학위논문

蔡翠，『東學影響下的梁啓超新聞思想』，西北大學，碩士學位
論文，2010.

梁媛，『論梁啓超的新聞人才觀』，湖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02.

王小海，『試論梁啓超對西方自由思想的認知與批判』，武漢大學，
碩士學位論文，2005.

王志春，『梁啓超的新聞思想』，內蒙古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李艷紅，『論梁啓超的新聞思想』，湘潭大學，碩士學位論文，
2003.

정기간행물

柴志芳，楊小強，『試析梁啓超新聞思想的產生，轉變和發展』，
太原師範學院學報，2006.

龔郭清，『論戊戌變法時期梁啓超政治思想兩大基本傾向』，浙江
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1999.

牛傑林，『開化期文體에 끼친 梁啓超의 影響』，中韓人文科學研
究。

文大一，『梁啓超在“開化期”韓國的影響』，青島大學師範學院學
報，2011.

王瑛琦，劉賓生，『從“去塞求通”主張的提出到“言論獨立”思想的
破產』，學術交流 第5期 1996.

徐新平，全燕，『論梁啟超後期自由主義新聞思想』，湖南大學學報，2004.

徐新平，伍丹陽，『論維新派報人新聞通俗化思想』，新聞知識期刊，2012.

楊陽，『評述梁啟超與《時務報》』文教質料，2006.

